2023년 하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2024년 노동시장 전망

동향분석실

Ⅰ. 2023년 노동시장 개관

본고에서는 2023년 올해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내년 2024년 노동시장을 전망한다. 2023년 노동시장은 견고했던 상반기 노동시장 상황이 하반기에도 이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높아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전년에 나타난 취업자 증가의 반대급부 등 올해 노동시장의 위축을 점치게 하는 다양한 요소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인구 증가폭을 뛰어넘는 취업자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 증가세가 내년에 어떻게 이어질지가 전망의 주요 관점이었다.

[그림 1]에 나타나듯 상반기까지는 취업자 증가폭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노동시장이 완만하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8월 이후 증가폭이 반등하면서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다. 1~10월 평균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336천 명 증가했고,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는 동 기간 감소했다. 고용률 증가세, 실업률 감소세가 이어지고는 있었지만 그 정도가 점점 둔화돼 왔으나, 8월 이후 고용률은 증가폭, 실업률은 감소폭이 다시 늘었다(그림 2 참조).

〈표 1〉 주요 고용지표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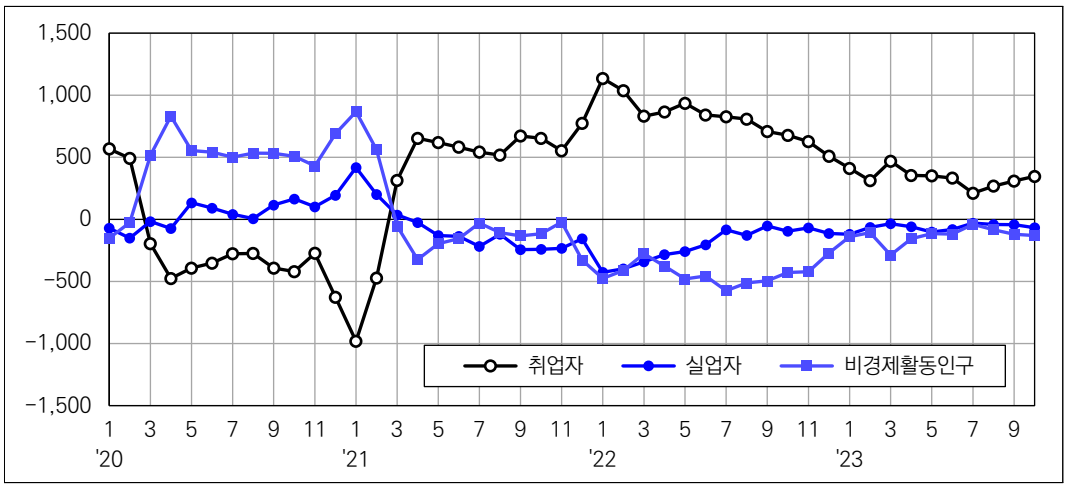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1~10월			분기		
	2021	2022	2023	2023 1분기	2023 2분기	2023 3분기
취업자	310	866	336	397	346	263
실업자	-46	-228	-64	-72	-81	-38
비경활	32	-449	-129	-178	-130	-81
고용률	0.3	1.7	0.5	0.7	0.5	0.4
실업률	-0.2	-0.9	-0.2	-0.3	-0.3	-0.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_____, KOSIS.

[그림 1]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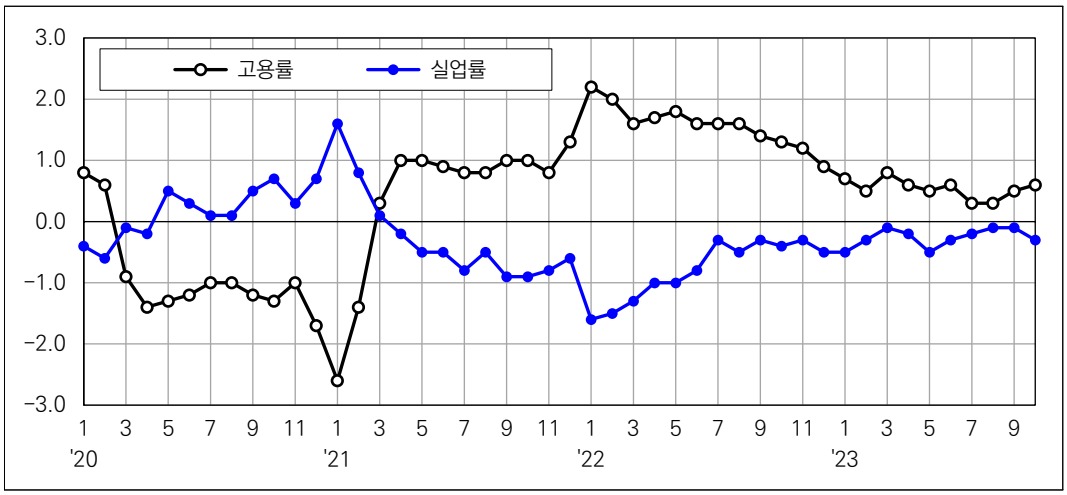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2] 고용률, 실업률 증감 추이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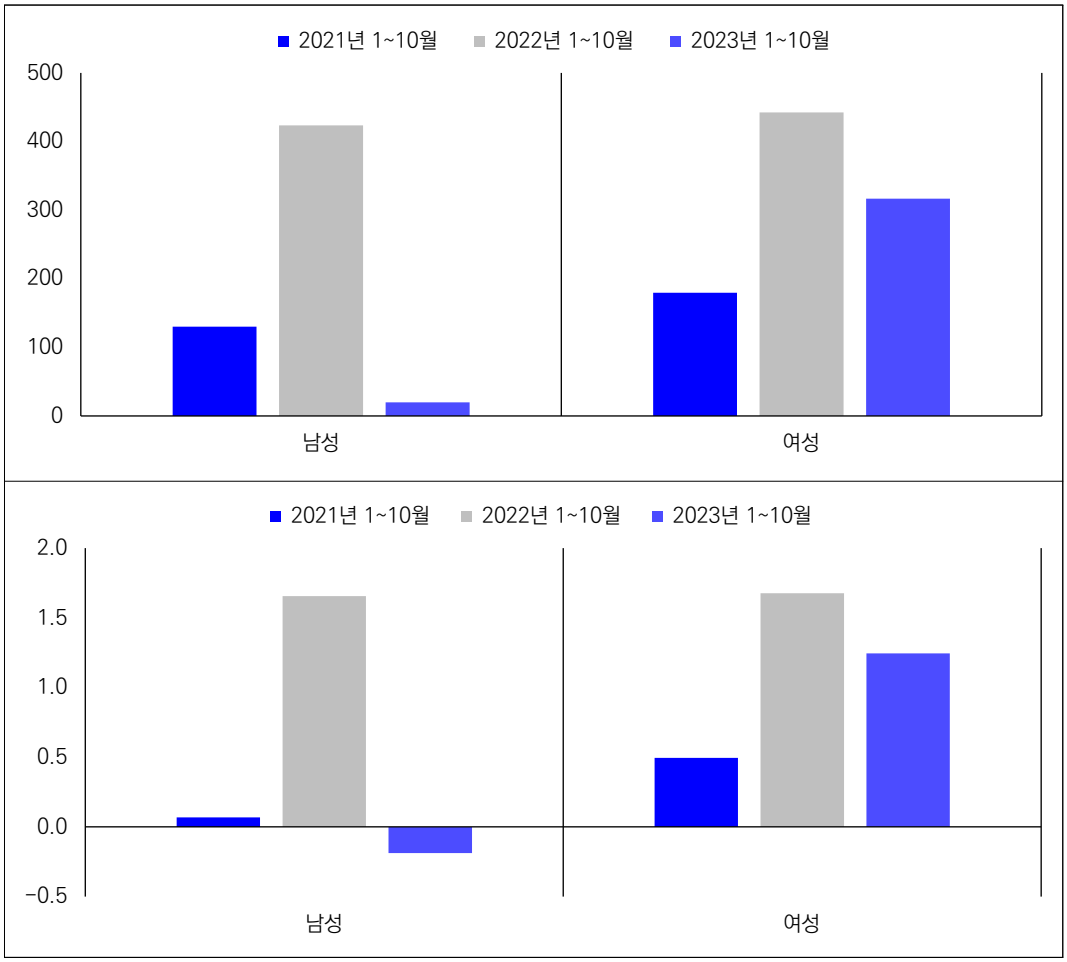
2020년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거시경제 충격이 노동시장에 부정적으로 반영된 시기, 2021년은 그 기저현상으로 고용의 양적지표가 늘었던 시기, 2022년은 충격에서 벗어나는 회복의 시기로 바라볼 수 있다. 과거 다양한 충격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위축됐던 시기에도 이와 같은 패턴이 반복된 사례가 있다. 상반기까지는 과거 추세와 비슷하게 위기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팽창된 고용의 양적지표가 예상보다는 조금 느리게 둔화되는 정도로 현재 상황을 평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8, 9, 10월 취업자 수 증가 둔화 속도가 더 점진적인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노동시장의 향방이 기존에 예상했던 추세를 벗어날 것인지, 아니면 예상 범주 안에서 세부적인 변동사항이 더 부각될 것인지 살펴본다.

올해 노동시장은 여성 고용의 증가, 60대 이상 고령층 고용 증가, 제조업 고용 둔화, 서비스업 위주의 고용 회복세로 요약할 수 있다. 2022년에는 성별과 무관하게 고용이 증가했으나, 2023년에는 늘어난 고용의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남성 고용률은 감소했고 여성 고용률은 증가했다. 이러한 양상은 상대적으로 여성 고용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위주의 고용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진출이 활발해진 점 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림 3] 성별 취업자(상), 고용률(하) 증감 변화 추이

(단위 : 천 명, %p,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고령화가 빠르게 심화되면서 전체 연령 중 60대 이상 인구만이 크게 증가 중이다. 이러한 추세는 단기간에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자 증가폭은 앞으로도 계속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가장 높을 것이다. 고령층의 인구증가분의 상당수가 취업자 증가로 이어져, 고용률 절대 수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취업자 증가폭은 고령층 고용 동향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 30대는 인구가 감소하는 와중에 취업자가 증가하여, 고용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청년층 고용률이 감소 전환되었으나, 2021년부터 청년 고용의 양적지표가 크게 증가했던 기저효과를 생각하면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2〉 연령별 주요 고용지표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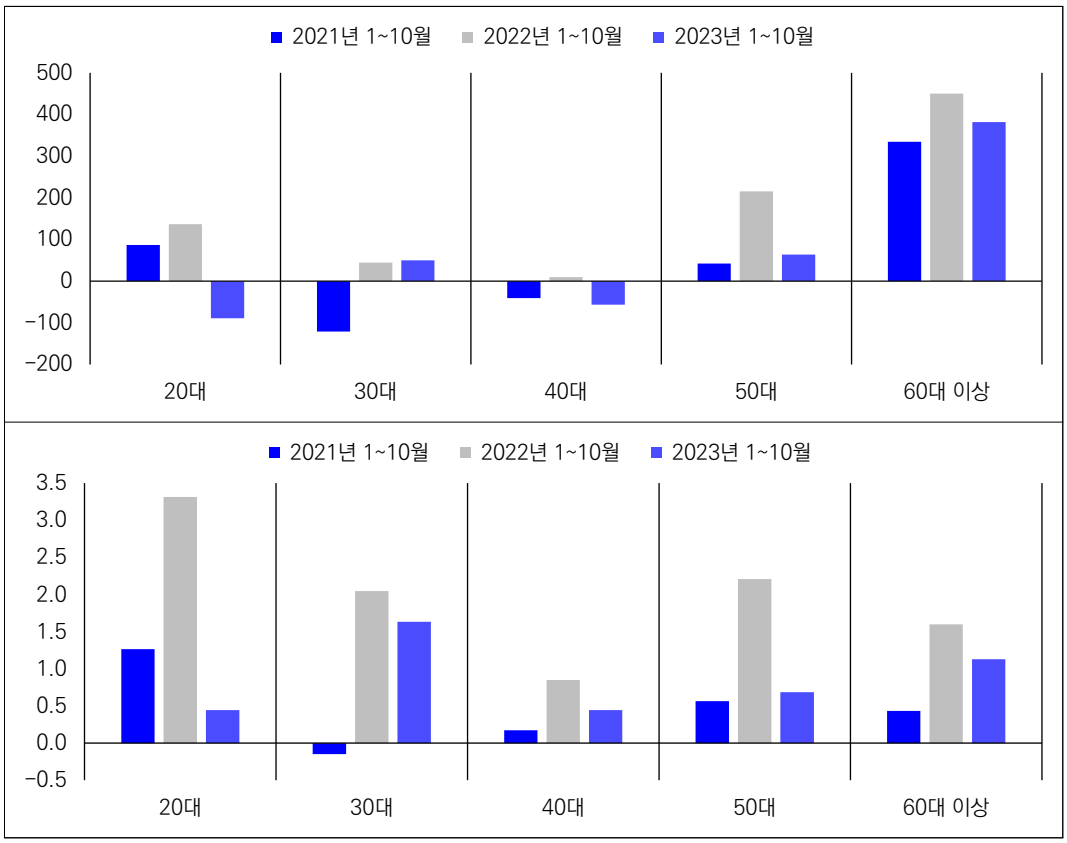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연도		1~10월 평균			분기		
		2021	2022	2021	2022	2023	2023 1분기	2023 2분기	2023 3분기
15~29세	인 구	-141	-203	-138	-201	-178	-187	-177	-172
	취업자	115	119	94	146	-103	-88	-118	-110
	실업률	-1.2	-1.4	-1.0	-1.6	-0.6	0.0	-1.0	-0.9
	고용률	2.0	2.4	1.7	2.7	-0.2	-0.1	-0.4	-0.4
30대	인 구	-144	-124	-147	-128	-79	-100	-81	-64
	취업자	-107	46	-121	45	50	22	52	57
	실업률	-0.2	-0.6	-0.1	-0.6	-0.2	0.1	-0.3	-0.3
	고용률	0.0	2.0	-0.1	2.0	1.6	1.4	1.7	1.5
40대	인 구	-70	-80	-71	-76	-118	-104	-116	-128
	취업자	-35	3	-41	10	-56	-68	-35	-63
	실업률	-0.1	-0.4	-0.1	-0.4	-0.1	0.0	-0.2	-0.1
	고용률	0.2	0.8	0.2	0.8	0.4	0.2	0.7	0.5
50대	인 구	-3	32	-8	35	7	12	-4	7
	취업자	66	196	42	216	64	78	58	60
	실업률	-0.3	-0.9	-0.3	-1.0	0.0	-0.1	0.0	0.1
	고용률	0.8	2.0	0.6	2.2	0.7	0.8	0.8	0.7
60세 이상	인 구	653	555	659	560	511	526	513	501
	취업자	330	452	334	450	382	453	388	318
	실업률	0.2	-1.0	0.2	-1.0	-0.4	-1.5	-0.1	0.2
	고용률	0.5	1.6	0.4	1.6	1.1	1.8	1.1	0.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4] 연령별 취업자(상), 고용률(하) 증감 변화 추이

(단위 : 천 명, %p,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제조업 고용은 둔화됐다. 다양한 형태의 대외 불확실성 증대는 특히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제조업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안정과 가격 상승,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등이 제조업 생산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고용은 과거 조선업 위기 때처럼 급격하고 큰 폭으로 감소하지는 않았다. 2022년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을 감안하면, 현재의 감소폭은 기저효과 정도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건설업은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민간주택 착공이 줄어들면서 전체 업황이 좋지 못하여 취업자가 감소 중이다.

서비스업 고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한 대면서비스업 상당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인 후 서서히 고용 증가세가 둔화 중이다. 도소매업은 최근 들어 취업자 감소폭을 줄였다.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비대면 서비스업 고용은 여전히 증가 중이며 증가폭도 크다. 비대면 특수가 끝난 운수창고업 취업자는

지난해 취업자 증가의 기저 영향도 더해져 감소했고, 부동산업 고용도 부진하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전 산업 중 취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산업이다.

이후의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부문별 노동시장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분석 및 평가해 본다. 미취업자 동향을 살펴보면서 경제활동참여 전반에 큰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 보고, 고용률 및 취업자 동향을 연령, 종사상지위, 산업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2023년 노동시장 평가를 기반하여 2024년 고용을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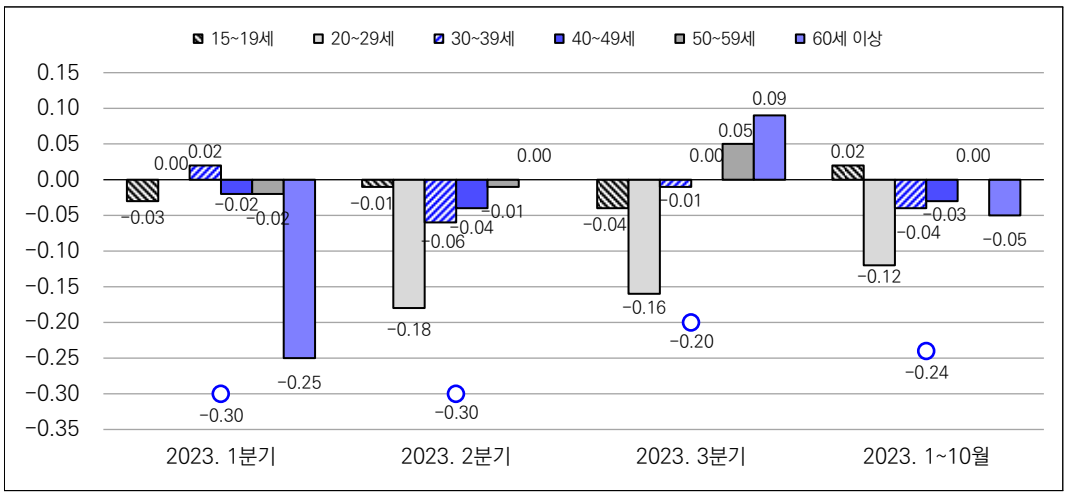
Ⅱ. 2023년 부문별 노동시장 평가

1. 여성과 고령자의 실업률 감소

2023년 실업률의 지속적인 감소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 정도의 노동 수요 회복을 반영하고 있다. 분기별 실업률은 1분기에는 3.2%로 자연실업률인 3.0%대 초반을 기록하였고, 2분기 2.7%와 3분기 2.3%로 매 분기 감소하였으며, 1999년 통계 개편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 수치를 기록하였다(그림 5 참조). 전년 동기 증감에 있어서는 1분기와 2분기 모두 -0.3%p, 3분기

[그림 5] 전체 실업률에서 연령대별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 증감

(단위 : %p,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0.2%p로 감소세가 둔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 실업률은 사실상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상반기 실업률은 청년층과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실업률 감소를 견인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2분기 감소로 전환 후 3분기까지 유지하였다. 60세 이상 연령층 실업률은 2023년 내내 꾸준히 감소하였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3분기에 60세 이상에서 증가로 전환되었지만, 1분기에 크게 하락했던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실업률의 증감에서 각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30대와 40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3분기에 둔화되고 있으며, 50대는 상반기 감소 둔화세를 유지하다 3분기는 증가로 전환하였다. 15~29세(5.3%)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의 2023년 3분기 실업률은 1.6~2.4% 수준이다.

2023년 상반기는 30대 여성과 고령층에서 크게 감소세를 보임과 동시에 하반기에도 유사한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여성 실업률은 0.5%p 감소하였고(남성 0.2%p), 3분기의 경우 전년 동 분기와 비교하면, 여성 실업률은 2.3%로 0.2%p 감소하였고 남성은 0.1%p 감소하여 실업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감소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하반기 역시 여성은 남성의 두 배 정도의 실업률 감소가 나타났다.

연령별 여성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5년간 추세를 살펴본다(그림 6 참조). 전체 여성 실업률은 15~29세 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2020년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충격을 벗어난 2021년 1분기부터 감소세를 보이면서 2023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낮은 비경제활동인구를 기록했다. 15~29세의 경우 2022년 하반기에 실업률이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2023년 상반기 감소로 전환하였고, 3분기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22년 1분기부터 감소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다 2023년 상반기까지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3분기는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 청년 여성 실업률이 3분기에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활발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0대 여성은 2023년 실업률 감소를 견인하는 주요 집단이다. 30대 여성은 실업률 감소세가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크지 않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비경제활동인구가 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30대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통해 빠르게 취업자로 전환됨을 알 수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2022년 상반기부터 큰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상반기에는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3분기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변화를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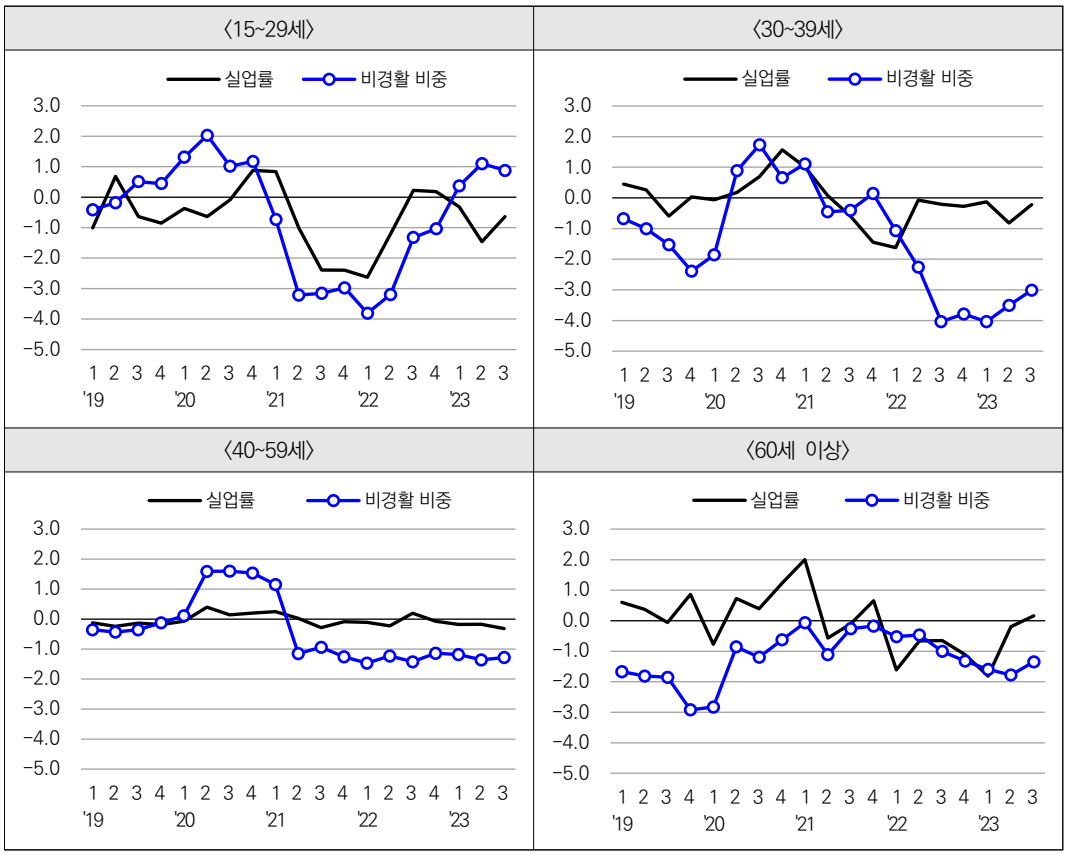
40~59세 여성을 살펴보았을 때, 30대 여성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2년은 실업률 감소폭이 줄어들면서 2023년 상반기는 전년과 비슷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3분기부터 다시 감소폭이 커지면서 2020년 이전 수준보다 낮은 실업률인 0.8%를 기록했다.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감소 추세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40~59세 여성은 30대 여성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취업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60세 이상의 경우, 상반기와는 달리 60~64세 실업률 증가로 인해 3분기에는 증가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2022년 상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3분기 들어서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림 6] 여성 연령별 실업률 및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증감

(단위 : %p, 전년동기대비)



주 :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각각의 여성 인구 대비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에서 일자리에서 유출 인구를 통해 실업 사유에 따른 실업자 추이 변화를 볼 수 있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구직 활동 유무에 따라 구별되는데, 2023년 실업자 감소 요인을 살펴보면 취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는 2022년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축소되고 있다. 2023년 1분기는 전년동기대비 28천 명 감소하면서 3분기에는 6천 명이 감소하였다. 반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2022년 하반기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2023년 1분기에 증가로 전환하였지만, 2분기에는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3분기도 둔화세를 유지하고 있다.

〈표 3〉 실업 사유별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21				2022				2023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실업자	취업 유경험(1년 미만)		175	-153	-172	-186	-309	-169	-66	-56	-28	-23	-6
	자발적	개인/가족 관련	-21	-7	-3	-1	-27	-42	-5	2	10	11	-8
		작업 여건	-34	-38	-47	-36	-3	34	33	12	21	-12	-2
	비자발적	직장 여건	95	-138	-120	-152	-189	-99	-73	-44	-13	-7	28
		임시직/일의 완료	134	32	-2	-4	-88	-62	-18	-25	-46	-14	-23
	기타		1	-2	-1	0	-1	3	-3	-1	-2	-1	-1
비경제활동인구	취업 유경험(1년 미만)		113	-357	-250	-348	-354	-250	-186	-31	88	24	16
	자발적	개인/가족 관련	-161	-185	-56	-10	26	26	14	22	39	61	54
		작업 여건	-17	-49	-30	-18	2	10	35	31	32	25	-1
	비자발적	직장 여건	218	-98	-153	-296	-305	-237	-205	-100	-57	-1	7
		임시직/일의 완료	74	-29	-8	-13	-77	-43	-28	13	72	-52	-38
	기타		0	4	-4	-10	1	-6	-3	3	3	-9	-5

주 : 1) 개인/가족 관련 사유에는 개인, 가족관련 이유, 육아, 가사, 심신장애, 정년퇴직, 연로가 포함됨.
2) 작업 여건 사유는 작업여건(시간, 보수 등) 불만족을 의미함.
3) 직장 여건 사유에는 직장의 휴·폐업, 명예퇴직, 조기퇴직, 정리해고,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부진이 포함됨.
4) 임시직/일의 완료는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를 의미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실직 사유별 증감을 살펴보면, 실업자의 경우 자발적인 사유로 분류되는 '개인/가족' 및 '작업 여건'에서 개인 사유는 상반기에 증가세를 보이다가 3분기에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작업 여건의 경우 2분기에 감소로 전환되었다가 3분기는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비자발적 사유인 '직장 여건'과 '임시직/일의 완료'는 2023년 상반기 감소폭이 축소되다가 3분기에 '직장 여건'에서 증가로 전환하였고,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는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직장 여건'에서 증가세를 보이지만, '임시직 일의 완료'에서 감소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외부 경기 요인이 실직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비경제활동인구의 실업 사유는 2023년 상반기 자발적인 사유에서 증가세를 보였지만, 3분기 들어 증가폭이 줄거나 '작업 여건'에서 감소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유 중 비자발적인 요인은 직장의 내부 환경 변화 혹은 임시직/계절적 일의 완료를 살펴보면, 상반기의 경우 크게 감소하였지만 하반기에 증가세로 전환하였고, 임시직/일의 완료는 2

분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지만 3분기에는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산출하는 실업률은 15세 이상의 취업자와 실업자의 비중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직 활동을 하되 장기간 쉬거나 단기적인 일을 하면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실업률에서 포함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일하고 싶은 의사가 있지만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노동력이 나타나는 지표인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잠재경제활동인구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를 함께 비교하면(그림 7 참조), 2023년 상반기 확장실업률의 경우 2.0%의 감소세를 유지했으며 하반기는 비교적 감소세가 축소된 1.0% 감소를 보였다. 이는 2023년 상반기 실업률 감소를 견인한 잠재활동경제인구가 하반기에 감소세가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이하면서 추가로 취업을 원하는 시간관련 추가취업자는 2022년 크게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상반기 들어 감소세가 축소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2022년 크게 감소하던 4.1%의 확장실업률이 2023년 상반기에 2.6%로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하반기도 동일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시간관련 추가취업자가 2023년 상반기에 증가세로 전환함과 동시에 하반기도 소폭 증가하였다. 취업자 비중에서 시간관련 추가취업자는 비중이 작지만 확장 실업률 감소세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청년층의 불완전 취업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요 근로 인구 집단으로 여겨지는 30~59세 연령대의 경우 2022년 2.1%의 확장실업률 감소세가 2023년 상반기에 1.5%로 감소하였고 하반기에 1.0%로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다. 이는 잠재경제활동인구가 2023년 상반기에 감소폭 축소와 하반기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의 감소폭 축소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성별로 변화 양상이 다르다. 우선 전체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2023년 상반기에는 154천 명 감소하였고, 3분기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81천 명 감소하여 527천 명 감소했던 2022년 3분기보다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었다(표 4 참조). 비경제활동인구 중 남성의 경우 상반기는 81천 명 증가하였고, 3분기는 110천 명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반면, 여성은 235천 명으로 감소하면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3분기는 191천 명으로 감소세가 줄어들었으나 감소세를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상반기에 남성은 육아・가사, 통학, 쉬었음에서 증가하면서 3분기는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여성의 경우 상반기에 육아・가사, 취업준비, 연로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3분기도 감소세를 유지하였으며, 쉬었음은 증가세가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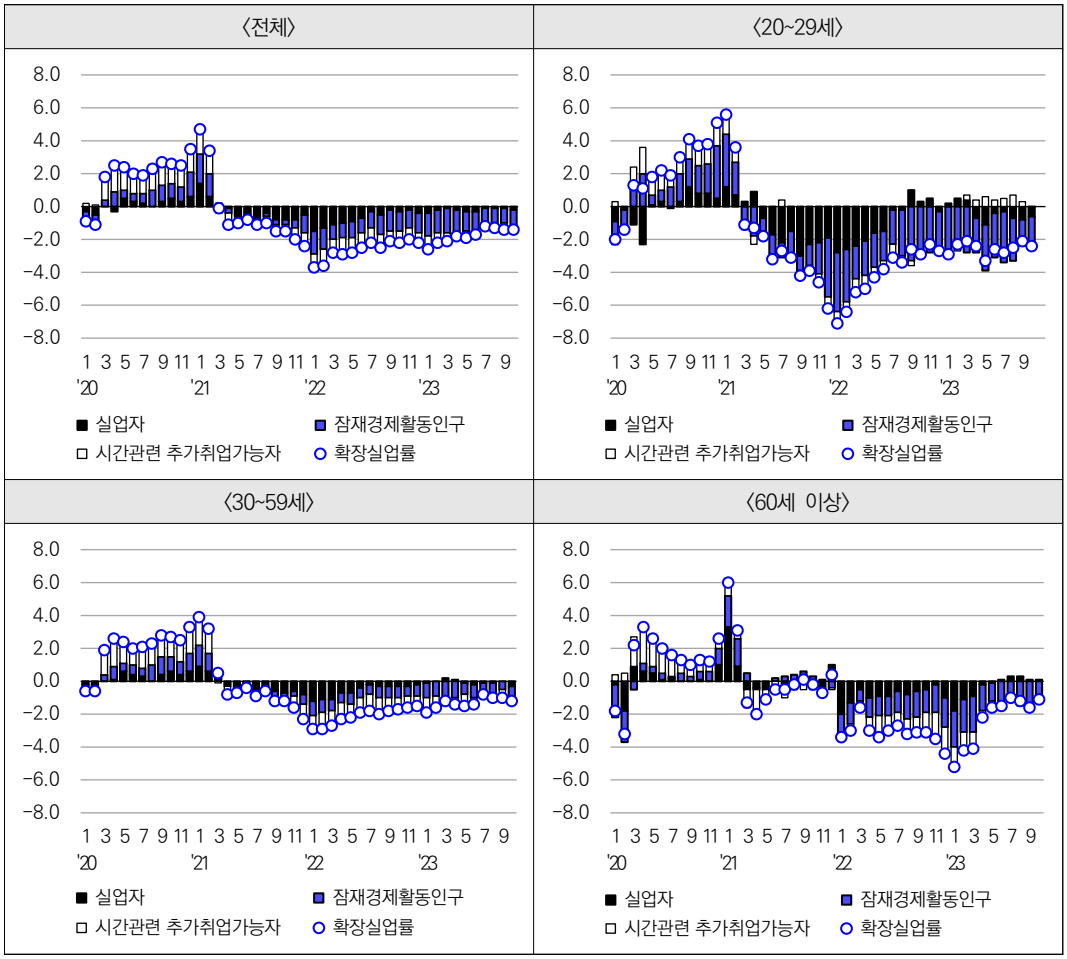
2023년 1~10월을 전년대비로 보았을 때, 비경제활동인구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23년 실업률을 견인한 큰 요인인 고령층과 주요 연관이 있는 연로의 경우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고령층 비경제활동인구가 빠르게 경제활동인구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반면 쉬었음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약 두 배의 증가폭을 보였는데, 이는 주로 여성 인력이 필요한 업종인 보건·복지업 등의 수요 증가가 요인이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의 경우 1년 이내 구직 경험이 있지만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구직단념자를 살펴보았을 때, 2023년 상반기 118천 명 감소하였지만 2분기에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3분기에도 이와 같은 양상을 유지했다. 남성과 여성은 상반기에 각각 61천 명, 58천 명 감소하였고, 남성은 3분기에 감소세가 축소되었지만, 여성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7] 연령대별 고용보조지표(확장실업률)와 각 구성 요인의 변동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주 : 1)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잠재취업가능자 및 잠재구직자를 합한 것을 의미함.
2) 15~19세는 전체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20대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그림에서는 제외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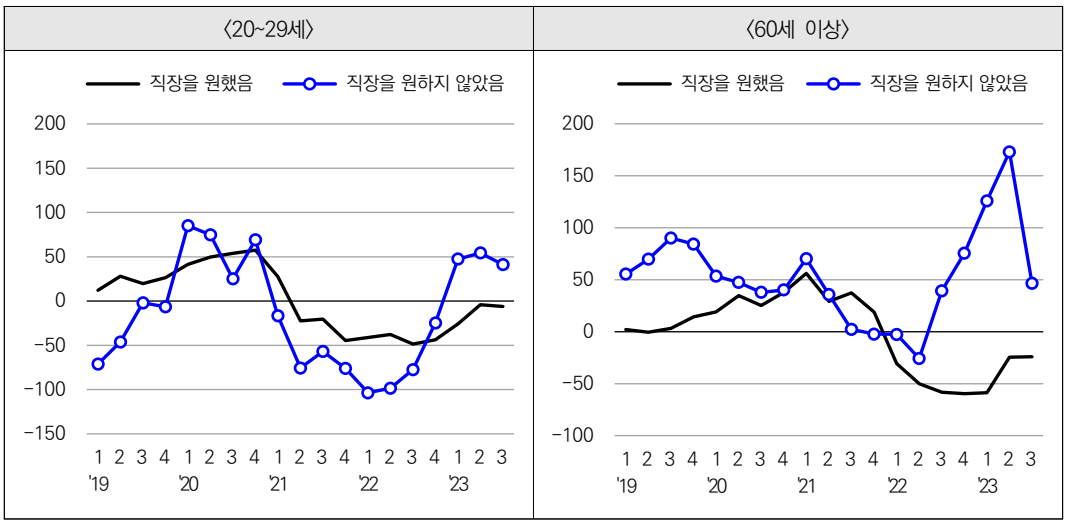
	전체				남성				여성			
	20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1~10월	1분기	2분기	3분기	1~10월	1분기	2분기	3분기	1~10월
전체	-178	-130	-81	-129	61	101	110	90	-238	-231	-191	-219
육아 · 가사	-145	-155	-140	-143	21	27	18	22	-167	-182	-158	-165
통학	42	74	48	49	36	45	26	32	6	29	22	17
취업준비	-107	-90	-91	-96	-60	-38	-33	-44	-47	-52	-58	-52
연로	-95	-129	27	-55	-17	-55	54	1	-78	-74	-26	-56
쉬었음	105	163	70	102	67	120	58	76	39	43	12	27
기타	23	7	5	13	14	2	-13	3	8	5	18	9
구직단념자	-140	-96	-54	-93	-65	-56	-12	-43	-76	-40	-42	-51

주 : 1) 통학은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및 진학준비 사유를 포함함.
2) 취업준비는 취업을 위한 학원 · 기관 통학 및 취업준비 사유를 포함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쉬었음의 증가는 연령별로 20대와 60세 이상에서 주로 나타났다. 20대는 2023년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20천 명 증가하였고 3분기는 19천 명 증가하여 최근 증가폭이 소폭 둔화되었다. [그림 8]은 20대와 60세 이상 '쉬었음' 인구 중 지난주 직장을 원했는지 여부로 구분하여 보여

[그림 8] 지난주 직장을 원했는지 여부별 20대 및 60세 이상 쉬었음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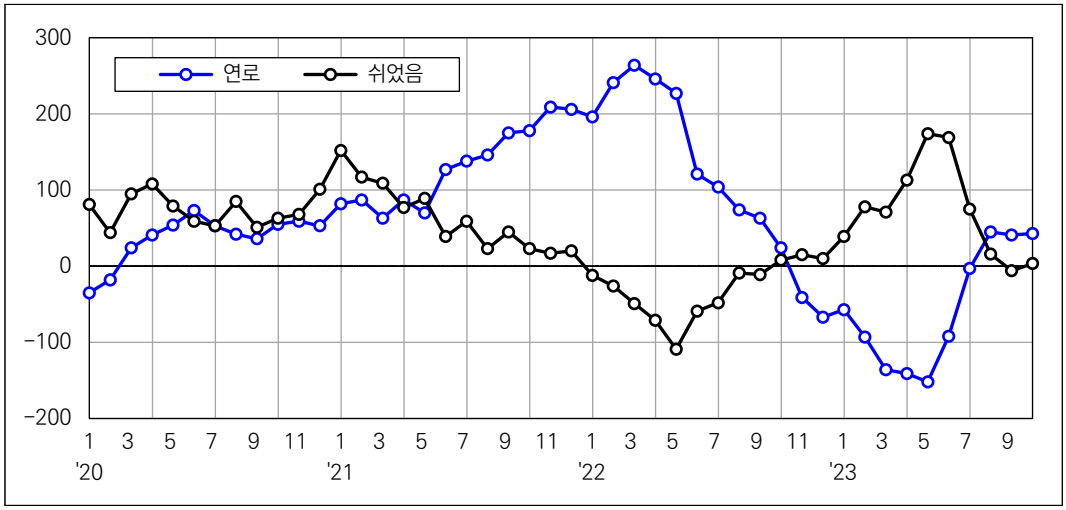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9] 60세 이상 연로 및 쉬었음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준다. 20대 중 직장을 원하지 않았던 20대는 상반기에 51천 명 증가하였고, 직장을 원했던 20대는 15천 명 감소하였다. 3분기에는 각각 41천 명 증가와 6천 명 감소로 둔화세를 보였다. 직장을 원하지 않는 60세 이상의 변화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2022년 하반기부터 증가세를 보이던 특징이 2023년 3분기 들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2023년 상반기에 150천 명이었던 직장을 원하지 않았던 인구가 3분기에는 47천 명까지 감소하여 선택적으로 쉬는 인구가 감소했음을 나타낸다.

60세 이상 쉬었음의 경우 상반기 108천 명 증가하였고, 3분기 들어 28천 명으로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연로의 경우 상반기 112천 명 감소하였고, 3분기에는 증가세로 전환하여 27천 명 증가하였다(그림 9 참조). 쉬었음과 연로의 증감 변화가 반대의 추세로 나타나고 있고, 고령층의 쉬었음은 연로의 이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령층의 변화 양상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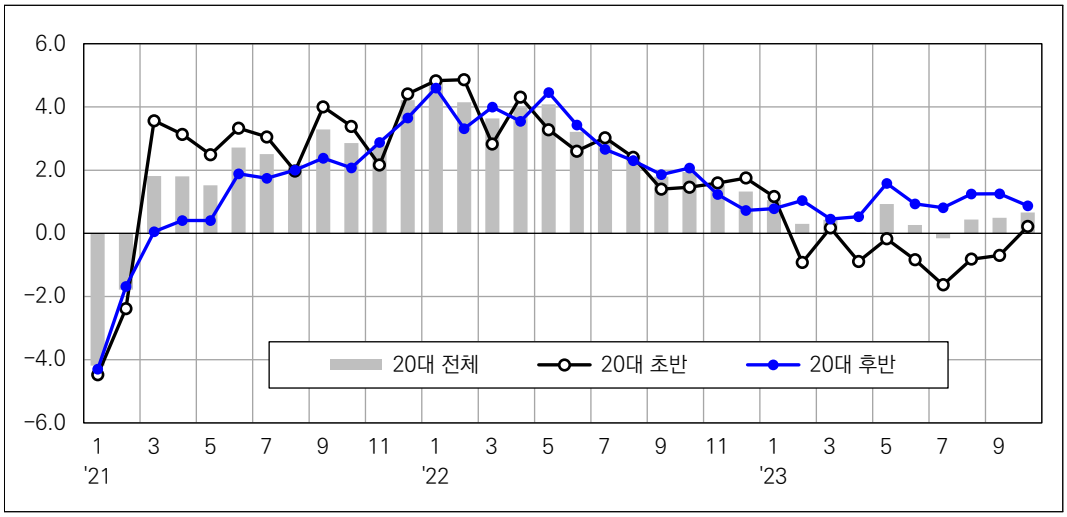
2. 연령별 고용 동향 : 20대 둔화, 30대 여성 양호, 60대 이상 호조

청년층이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나이가 20대 이후기 때문에 20대를 위주로 청년층 고용을 살펴보았다. 2022년에는 20대 인구가 20만 명대로 감소하는 와중에도 상당한 규모로 취업자가 증가했다. 그에 비하면 2023년 1~10월 평균 기준으로 취업자 약 9만 명가량이 감소 중이기 때문에 청년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20대 전체 고용률이 7월 감소로 전환했다가 8월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노동시장에 좀 더 본격적으로 진입해 있는

20대 후반 청년층의 고용률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 20대 초반 고용률 감소세도 3분기 들어 서서히 누그러지고 있다.

[그림 10] 20대 세부연령별 고용률 증감 추이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0대 초반과 20대 후반을 구분해서 산업별로 취업자 증감 변화를 살펴본다. 도소매업은 세부 연령대와 상관없이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전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감소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청년층만의 문제는 아니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두 연령대 모두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서서히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올해 전체로 보면 전산업 중 가장 큰 고용 증가이다. 20대 초반 연령대에서는 간호 인력이 포함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취업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20대 후반 연령대에서는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비교적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고루 분포한 업종에서 고용이 늘고 있다. 제조업에서는 연초보다는 작지만 여전히 고용이 감소하는 중이다.

20대 초반 고용을 살펴볼 때 재학 중 일자리 경험(아르바이트 등)의 영향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졸업여부별로 취업자 변화를 살펴본다. 재학 중인 청년 취업자는 아르바이트 접근성이 높은 내수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이 높다. 이에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고용 동향 전반이 20대 초반 재학자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난다. 전자의 산업에서는 2023년 연중 취업자가 증가하나 증가폭이 둔화 중이고 후자의 산업에서는 연중 취업자가 감소하나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 20대 초반에 최종학교를 졸업한 청년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 비중, 여성 졸업자 비중이 높다.

〈표 5〉 20대 인구의 세부연령별 ·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24세				25~29세			
	2023 1~10월	2023 1분기	2023 2분기	2023 3분기	2023 1~10월	2023 1분기	2023 2분기	2023 3분기
전 체	-60	-43	-68	-76	-29	-31	-26	-26
농림어업	-4	-5	-4	-6	-6	-7	-9	-2
제조업	-3	12	2	-15	**-27**	**-46**	**-21**	**-19**
건설업	1	-4	1	5	3	6	4	1
도소매업	**-30**	**-22**	**-36**	**-37**	**-54**	**-49**	**-75**	**-44**
운수창고업	-9	-7	-11	-11	-13	**-34**	**-15**	7
숙박음식업	**26**	**47**	**28**	**13**	**19**	**49**	**22**	-2
정보통신업	-8	-15	-7	-1	**15**	-2	8	**26**
금융보험업	-15	-14	-17	-16	0	3	4	-3
부동산업	-1	0	-1	0	0	3	-1	-2
전문과학기술서비스	-8	**-16**	**-12**	-1	**12**	**15**	**25**	-3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1	3	-2	0	-5	-9	-7	-3
공공행정	-7	-9	-10	-4	2	8	5	-3
교육서비스	3	-11	15	4	0	10	1	-3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7	**-11**	**-18**	-22	5	**26**	-5	0
예술 · 스포츠	**13**	**13**	**10**	**12**	**14**	-2	**28**	**15**
협회 · 개인서비스	2	1	-1	4	7	4	12	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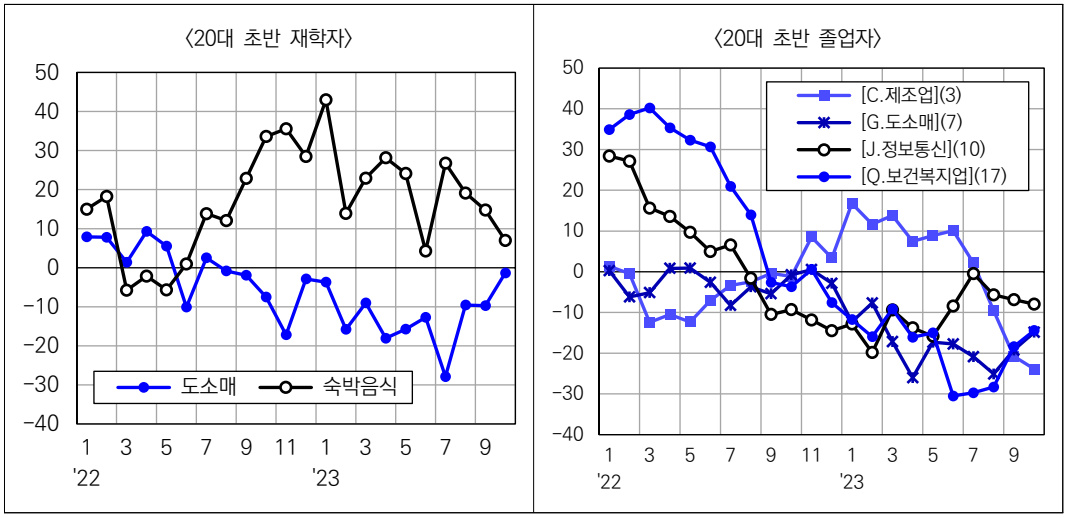
그 때문에 간호사가 포함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 변화폭이 크다. 2022년 취업자가 크게 증가했던 영향이 2023년에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20대 후반 졸업자는 상반기까지 도소매,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컸다. 7월 이후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 숙박음식점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이전에 비해 적어졌고, 정보통신업에서는 3분기 이후 증가하였다.

20대 후반 연령대는 다양한 최종학력 졸업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학력별로 고용지표를 살펴본다. 초대졸, 대졸 이상 졸업자의 고용률은 2분기 이후에 증가로 전환했지만, 고졸 이하 졸업자 고용률은 2분기에 감소로 전환했다. 1분기까지 숙박음식점업 등 대면서비스업 회복세가 최고조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졸 이하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다수 분포되어 있는 대면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이 점차 축소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들어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 등에서 20대 후반 고졸 이하 졸업자 고용이 둔화됐다.

[그림 11] 20대 초반(20~24세) 재학자(좌), 졸업자(우) 산업별 취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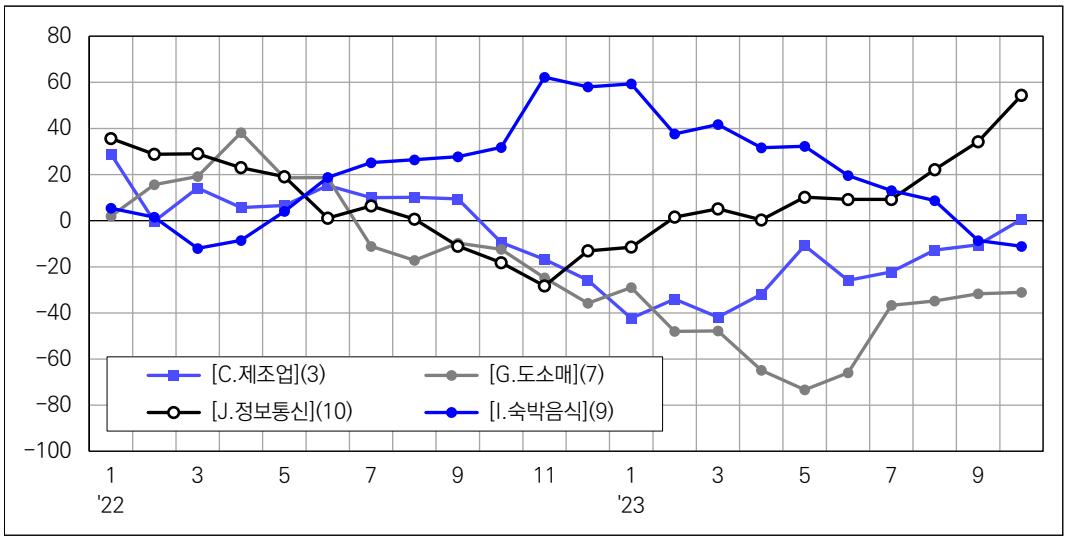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주 : 수학여부 변수 답변 중 '재학', '휴학'을 재학자로, '졸업', '중퇴'를 졸업자로 분류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2] 20대 후반(25~29세) 졸업자 산업별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주 : 수학여부 변수 답변 중 '재학', '휴학'을 재학자로, '졸업', '중퇴'를 졸업자로 분류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30대는 여성 위주로 고용률이 증가 중이다. 특히, 인구가 감소 중인 30대 후반 연령대에서 여성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크게 늘었다. 고용률 증가폭이 1~10월 평균 4.3%p를 기록

했다. 30대 여성 경제활동상태에 주요 변인인 혼인여부별로 고용률을 살펴보면, 기혼여성, 미혼여성 모두 고용률이 증가했고, 특히 30대 후반 미혼여성 고용률이 크게 증가했다. 30대 후반 미혼여성 1~10월 평균 경제활동참여율은 80.2%로 전년동기보다 5.7%p 증가했다. 30대 후반 기혼여성 역시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세이다. 이러한 현상이 결혼과 출산 연령이 점점 뒤로 미뤄지는 추세와 연관이 있는지는 좀 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표 6〉 20대 후반 졸업자 학력별 고용률 수준 및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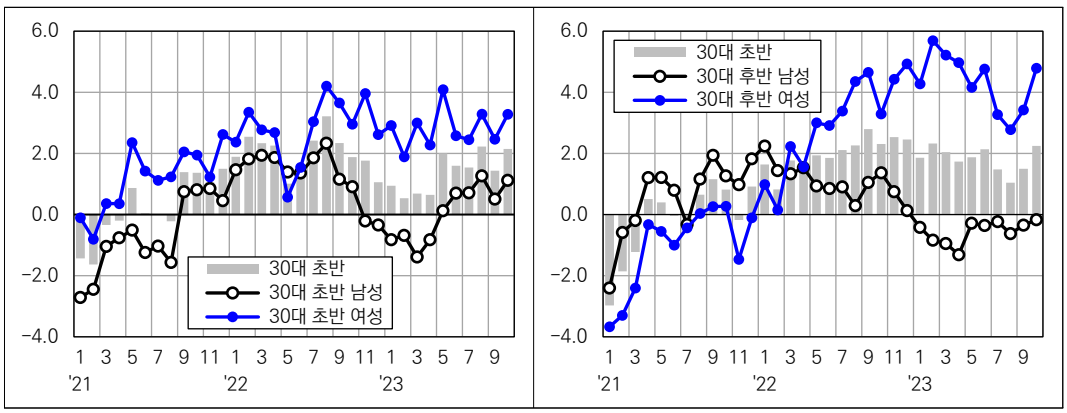
(단위 : % ,%p, 전년동기대비)

	수준				증감			
	전체 졸업자	고졸 이하	초대졸	대졸 이상	전체 졸업자	고졸 이하	초대졸	대졸 이상
2023 1분기	76.4	73.2	79.7	79.7	1.1	**4.9**	-1.3	-1.3
2023 2분기	77.4	73.2	81.5	81.5	1.0	**-0.2**	1.1	1.1
2023 3분기	76.9	73.4	79.9	79.9	0.5	**-0.6**	1.0	1.0

주 : 수학여부 변수 답변 중 '재학', '휴학'을 재학자로, '졸업', '중퇴'를 졸업자로 분류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3] 30대 초반(30~34세, 좌), 후반(35~39세, 우) 연령대 성별 고용률 증감 추이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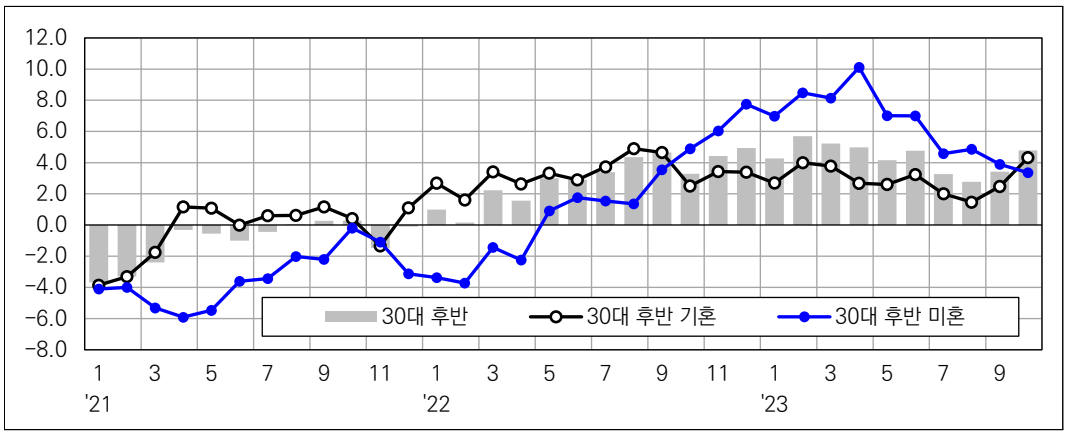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30대 남성 취업자 수 증가는 상대적으로 적다. 인구감소를 고려한 고용률은 30~34세 남성의 경우 2분기부터 증가하고 35~39세 남성은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산업별 30대 남성 취업자 변화를 보면,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가 크다. 반면, 비슷한 규모로 음식숙박업에서 고용이 증가했다. 여성은 대부분 산업에서 취업자가 증가 중인데, 제조업, 공공행정, 보건사회복지, 숙박음식점업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컸다.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와 이에 따른 고용지표 개선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그림 14] 30대 후반(35~39세) 여성 혼인여부별 고용률 증감 추이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주 : 혼인상태 변수 답변 중 '미혼', '사별', '이혼'을 미혼으로, '유배우'를 기혼으로 분류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7〉 30대 산업별 · 성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30대 남성				30대 여성			
	2023 1~10월	2023 1분기	2023 2분기	2023 3분기	2023 1~10월	2023 1분기	2023 2분기	2023 3분기
전 체	-43	-77	-48	-19	94	98	100	76
농림어업	-14	-18	-10	-17	-1	2	-3	-2
제조업	-50	**-68**	**-57**	-30	30	37	32	24
건설업	-13	**-25**	**-22**	2	-1	1	-1	-6
도소매업	5	11	9	3	3	-2	-4	11
운수창고업	-9	10	-8	-24	0	6	-1	-6
숙박음식업	38	37	38	41	18	15	20	19
정보통신업	-2	0	-1	-4	11	20	19	-4
금융보험업	-9	-15	-10	-8	-1	-12	5	1
부동산업	-2	-8	-1	2	-1	-7	-2	4
전문과학기술서비스	8	2	7	13	-2	-18	5	5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6	-6	4	16	-5	-2	-3	-9
공공행정	2	3	5	-4	17	23	6	18
교육서비스	-12	**-21**	**-16**	-5	-7	-7	-3	-9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1	-2	14	16	16	31	16	6
예술 · 스포츠	-2	4	0	-8	9	2	11	13
협회 · 개인서비스	2	19	-1	-7	12	14	8	1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40대 취업자는 감소했으나 고용률은 소폭 증가했다. 여성은 고용률이 증가했으나 남성은 고용률이 감소했다. 인구가 감소 중인 40대 후반 남성 취업자는 종사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고루 감소 중이다.

〈표 8〉 40대 인구의 주요 산업별 · 성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40~44세				45~49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22 1~10월	2023 1~10월	2022 1~10월	2023 1~10월	2022 1~10월	2023 1~10월	2022 1~10월	2023 1~10월
전 체	42	7	67	29	-41	-73	-59	-20
제조업	9	-4	3	1	2	-12	-2	-10
건설업	5	-14	1	0	-24	-18	7	-3
도소매업	22	-22	20	7	-18	-12	-20	-5
운수창고업	3	14	1	-2	15	-4	-1	-2
숙박음식업	5	-4	13	5	7	11	-10	15
정보통신업	-8	9	10	9	17	3	1	1
금융보험업	-3	17	-8	4	-7	-10	-11	2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3	-17	-2	4	13	1	4	-14
공공행정	4	4	4	-6	-12	-7	-3	-3
보건사회복지서비스	8	1	5	12	-4	6	-8	-9
예술 · 스포츠	5	3	5	-8	-4	-10	-3	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50대 고용은 30대와 성별 고용 상황이 유사하고 산업별 고용상황은 점차 60대 고령층 상황과 비슷하게 변화하고 있다. 남성 고용률은 거의 증가하고 있지 않고 여성 고용률은 증가하면서 여성 위주의 취업자 증가를 나타낸다. 50대 여성은 돌봄 관련 고용 증가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증가했고 종사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취업자 역시 꾸준히 증가했다. 두 산업에서의 고용증가가 60대 이상 고령층 여성 고용 변화와 유사하다.

과거 몇 년간 주로 65세 이상 임시직 공공행정, 보건사회복지 고용 증가가 60대 이상 취업자 증가에 주를 이루면서 직접일자리사업 영향이 이 연령대 고용변화에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올해는 노인일자리사업 영향이 다소 줄어들면서 60대 초반 연령대에서는 도소매, 사업시설, 60대 후반은 보건사회복지,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 제조업, 농림어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임시직 취업자 산업별 분포가 보건복지, 공공행정 등 직접일자리사업 관련 산업에서는 감소하고 숙박음식, 제조업, 운수창고 등 주로 민간 일자리일 것이라 생각

되는 산업에서는 증가했다. 고령층 경제활동이 점차 활발해지면서 고용 증가가 점차 민간부문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9〉 50대 인구의 주요 산업별 · 성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50대 남성				50대 여성			
	2023 1~10월	2023 1분기	2023 2분기	2023 3분기	2023 1~10월	2023 1분기	2023 2분기	2023 3분기
전 체	6	8	-6	9	58	70	65	51
제조업	5	8	2	6	**-30**	**-26**	**-38**	**-27**
건설업	**-5**	11	**-13**	**-14**	**18**	**13**	**18**	**21**
도소매업	**-6**	**-21**	**-11**	5	**36**	**27**	**50**	**33**
운수창고업	**-10**	**-24**	**-18**	2	-5	-8	-3	-5
숙박음식업	4	-4	7	13	**-22**	**-21**	**-23**	**-21**
부동산업	**-10**	**-13**	**-12**	**-9**	-2	-4	2	-4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0	16	10	6	**15**	**14**	**15**	**17**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11	18	7	9	4	2	6	4
공공행정	**-17**	-3	**-15**	**-27**	4	5	1	4
교육서비스	-9	-10	-8	-6	-1	12	-7	-6
보건사회복지서비스	7	12	11	2	**43**	**47**	**49**	**4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3. 종사상지위별 고용 동향 : 상용직 양호, 임시일용직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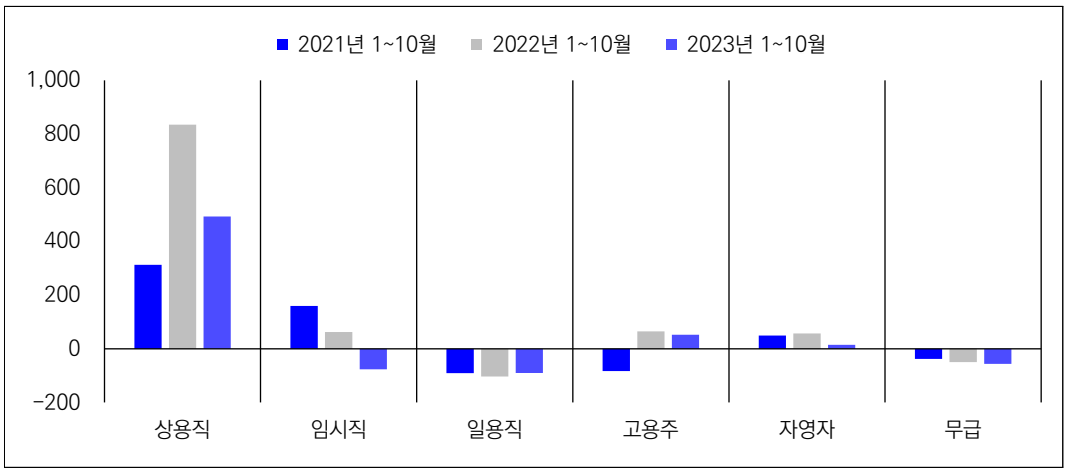
우리나라 고용 변동폭의 대부분은 상용직이다. 상용직 변동폭에 비하면 다른 종사상지위 취업자의 변화분은 매우 작아 전체 고용 변동폭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미미하다. 전년동기만큼은 아니지만 2023년에도 상용직이 크게 증가했다. 계절조정계열을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의 상용직 규모보다 10%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나머지 종사상지위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2월 수준의 고용을 회복하지 못했거나 이후 의미 있는 고용 신장을 보이지 못했다.

상용직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보건사회복지업이다. 돌봄 수요 증가로 유발되는 인력수요 대부분을 상용직 근로자로 채우고 있다. 정보통신업, 전문과학서비스업도 3년 연속 상용직이 증가 중이다. 숙박음식점업 상용직은 지난해에 이어 증가했다. 업황이 좋지 못한 도소매업에서도 상용직은 증가했다. 제조업은 상용직 증가폭 둔화가 나타났다.

임시직은 2022년 3분기에 감소로 전환된 이후 여전히 줄어들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층 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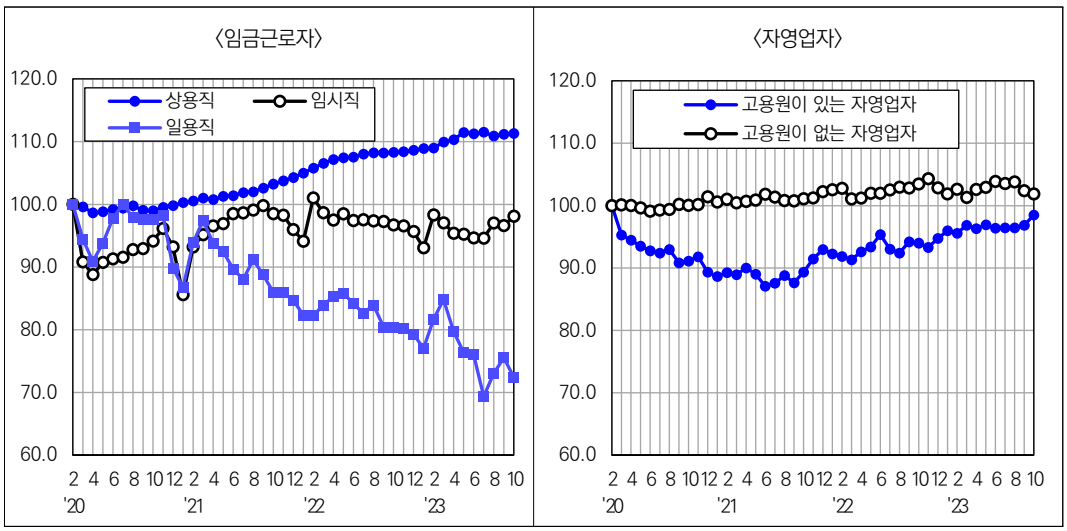
[그림 15]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증감 변화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6] 코로나19 확산 이후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변화(계절조정계열, 2020년 2월=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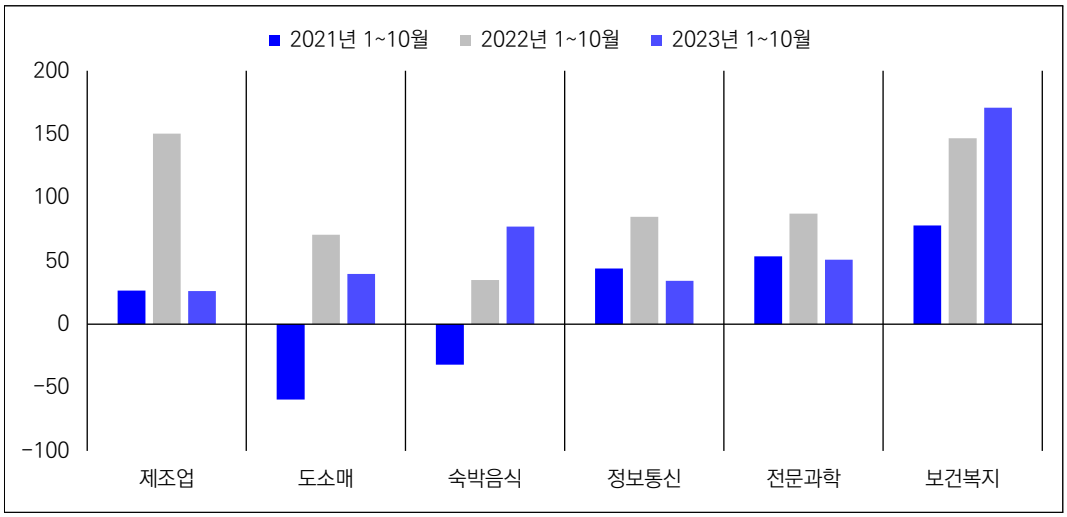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직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공공행정 종사자 증가폭 둔화 영향이 가장 컸다. 건설경기 둔화로 인해 건설업 임시직도 감소했다. 도소매 상용직이 증가한 데 반해, 임시직은 감소했다. 반면, 회복세가 충분히 나타난 음식숙박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는 임시직이 늘었다. 일용직은 종사자 대부분이 건설업, 제조업 종사자이다. 해당 산업 경기가 좋지 않은 영향으로 가장 가변적인 일자리인 일용직이 감소 중이다.

고용주와 자영자는 지난해에 이어 증가중이나 그 폭이 아주 작다. 다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꾸준한 폭의 증가를 보이는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최근 감소 전환 했다. 도소매업, 부동산업에서의 자영자 감소, 종사 비중이 높은 농림어업 자영자 증가폭 둔화가 주된 변화이다.

[그림 17] 상용직 산업별 취업자 증감 변화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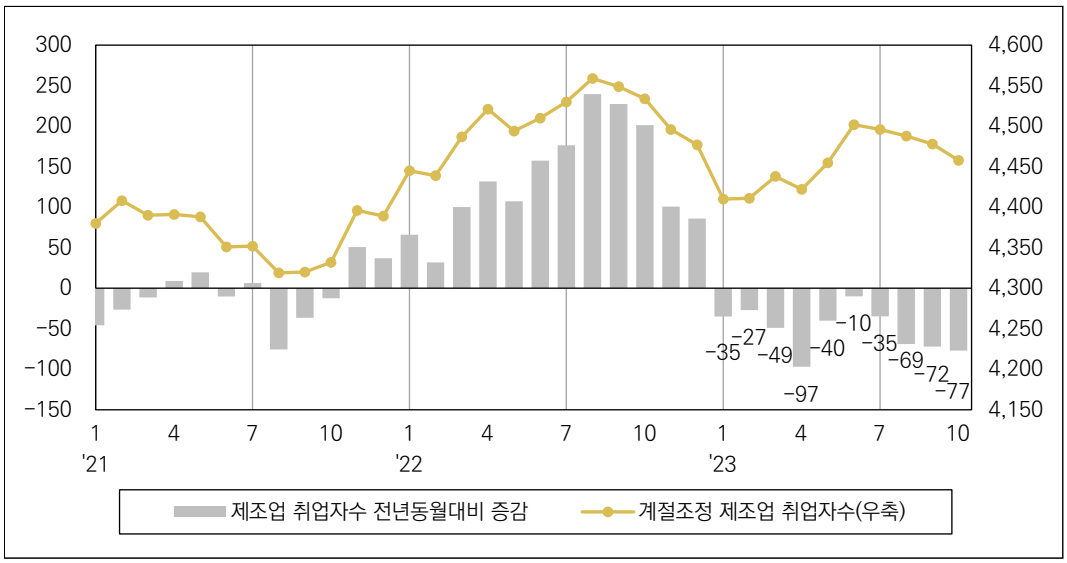
4. 제조업 고용 둔화세 지속

제조업 취업자는 올해 1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1~10월 평균 전년동기대비 5만 1천 명 감소하였다. 분기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3만 7천 명, 2분기에 4만 9천 명, 3분기에는 5만 9천 명 감소하여 취업자 감소폭은 점차 확대되었다.

[그림 18]의 금색 선은 계절조정 취업자 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전년의 취업자 증감 영향을 배제하고 취업자 움직임을 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올해 1월을 저점으로 상반기 중 증가하였으나 하반기 이후로는 매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사업체 종사자 수도 올해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22년 이후 증가세 둔화가 올해까지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2년에 6만 6천 명 증가한 제조업 사업체 종사자 수는 올해에도 매월 증가폭을 줄이며 상반기 4만 5천 명 증가, 3분기에는 3만 2천 명 증가했다. [그림 20]에는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이 나타나 있다. 제조업 전체 피보험자는 올해 강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것이 제조업 고용 호조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림 18] 제조업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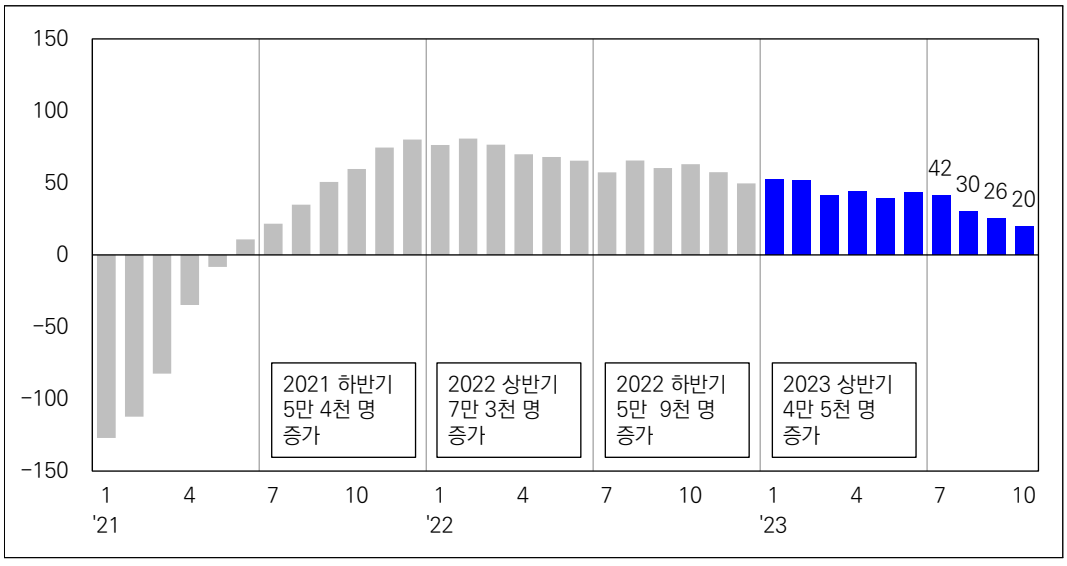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19] 사업체 종사자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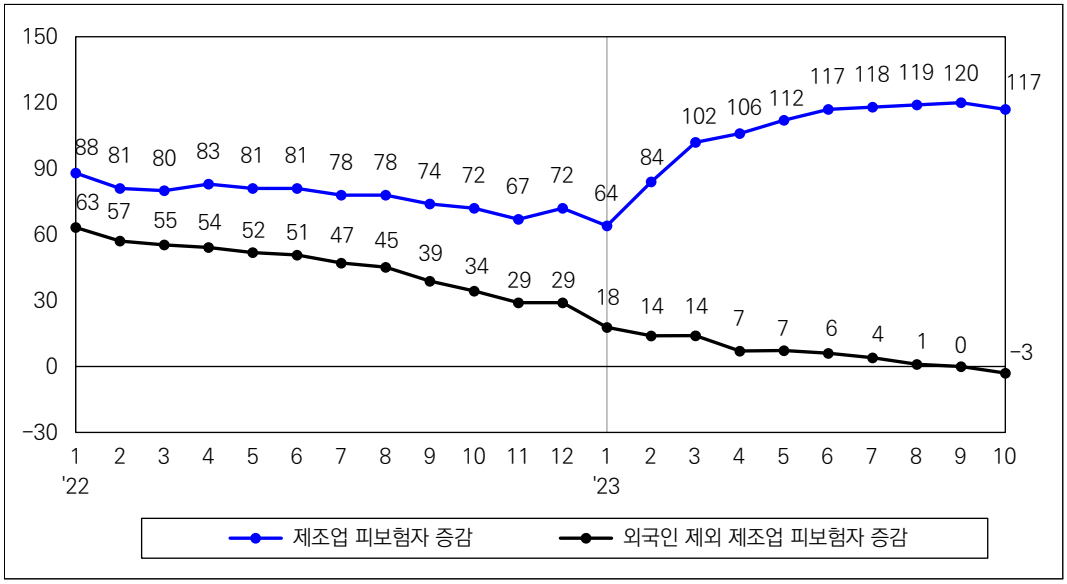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올해 제조업 전체 피보험자 증감에는 고용허가제 외국인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당연적용 대상이 되면서 외국인 가입자가 증가한 영향과 외국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채용 증가

[그림 20]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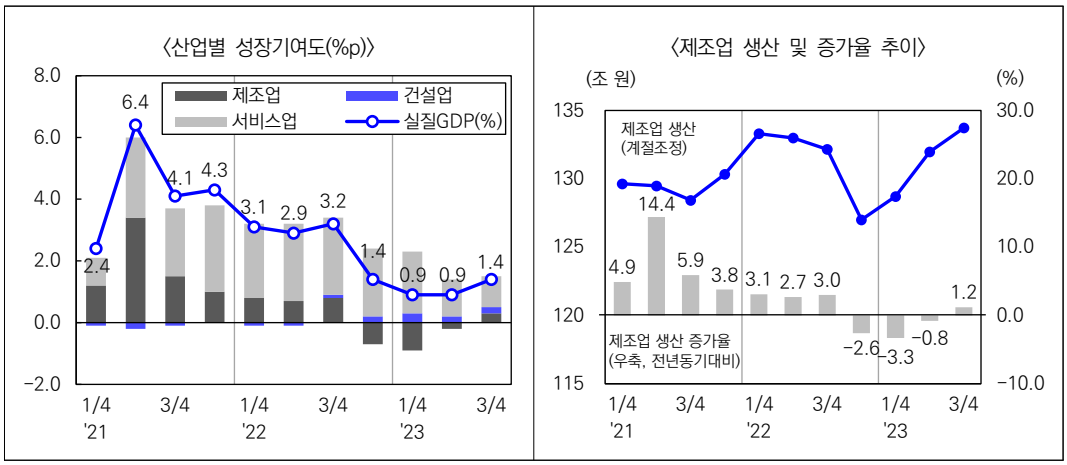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EIS; 고용노동부,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0월 노동시장 동향」 보도자료.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당연가입 조치는 2021년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10~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시행되었다가 2023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약 90%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를 통해 제조업 고용 동향을 파악하는 경우 판단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고용 동향 파악을 위해 참고할 자료는 외국인 제외 제조업 피보험자 증감이다. 그림에 나타나듯 2022년부터 제조업 피보험자와 외국인 제외 피보험자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 차이는 2023년 이후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외국인 가입자 증가 영향으로 제조업 피보험자는 강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반면, 외국인 제외 제조업 피보험자는 증가세의 둔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을 제외한 제조업 피보험자는 올해 초 1만 명대로 증가하였으나 매월 증가폭을 줄이며, 9~10월 중에는 감소로 전환되었다.

올해 제조업 고용은 모든 고용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부진했던 흐름이 나타난다. 다만 고용 둔화가 급격한 변동을 동반하기보다는 추세적 둔화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올 한 해 제조업 경기 상황과 같이 연결하여 생각해 보아도 제조업 고용 둔화는 경기 악화에 비해 비교적 완만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올해 경기는 연중 부진이 이어졌고, 수출도 큰 폭 감소가 나타났다. 수출은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산업(ICT)에서 크게 위축되었고, 석유류, 철강, 바이오헬스 등 품목에서 감소가 나타났다. 상반기 중 반도체를 중심으로 다수 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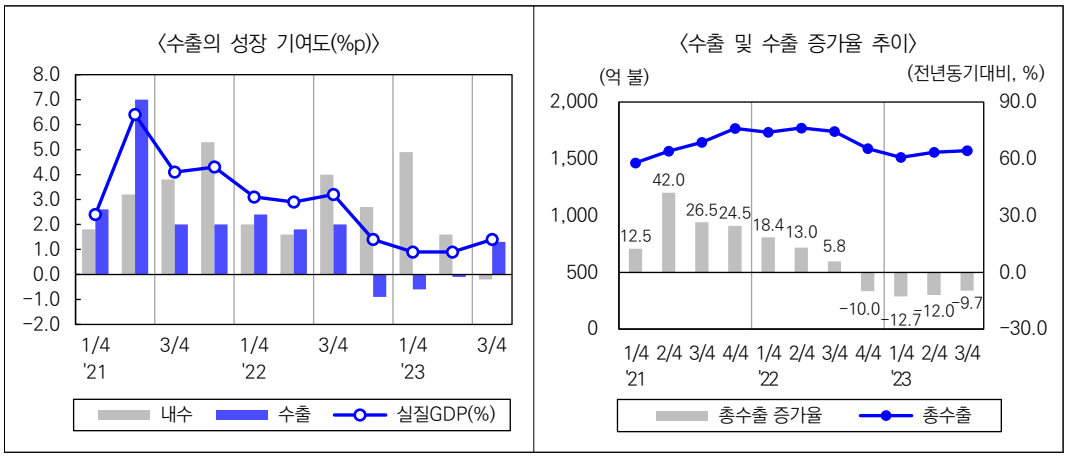
목들에서 수출 감소가 나타난 반면, 자동차는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자동차 수출 호조세는 연중 지속되었다. 반도체 수출은 1분기 저점 이후 회복 흐름을 보이며 수출 감소폭을 축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업황 부진도 일부 완화되었다. 제조업 생산은 1분기 3.3%, 2분기 0.8% 감소했으며, 3분기 들어 수출 지표가 개선되는 조짐이 나타나면서 제조업 생산도 회복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림 21] 국내총생산에 대한 산업별 성장기여도(좌), 제조업 생산 추이(우)



주 : 실질 GDP 금액(원계열) 기준이며, 23년 3분기는 속보치 자료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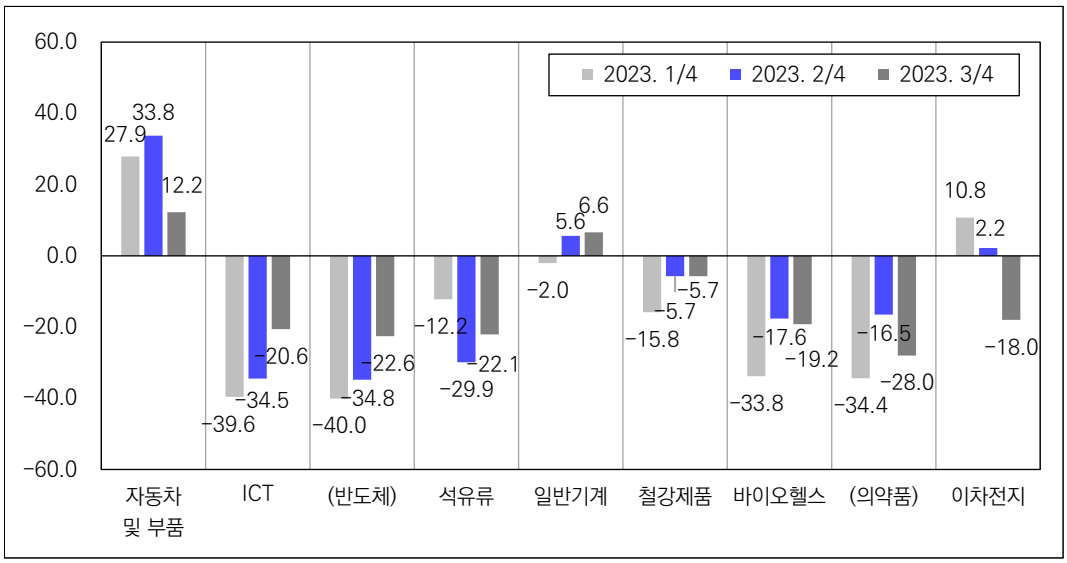
[그림 22] 국내총생산에 대한 수출의 성장기여도(좌), 수출 추이(우)



주 : 1) 왼쪽 그림은 실질 GDP 금액(원계열) 기준이며, 23년 3분기는 속보치 자료임. 내수는 최종소비지출+총자본형성이며, 수출은 재화수출(F.O.B기준)을 제시하였음.
2) 오른쪽 그림은 총수출 월별 자료를 합산하여 분기자료로 변환한 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계산하였음.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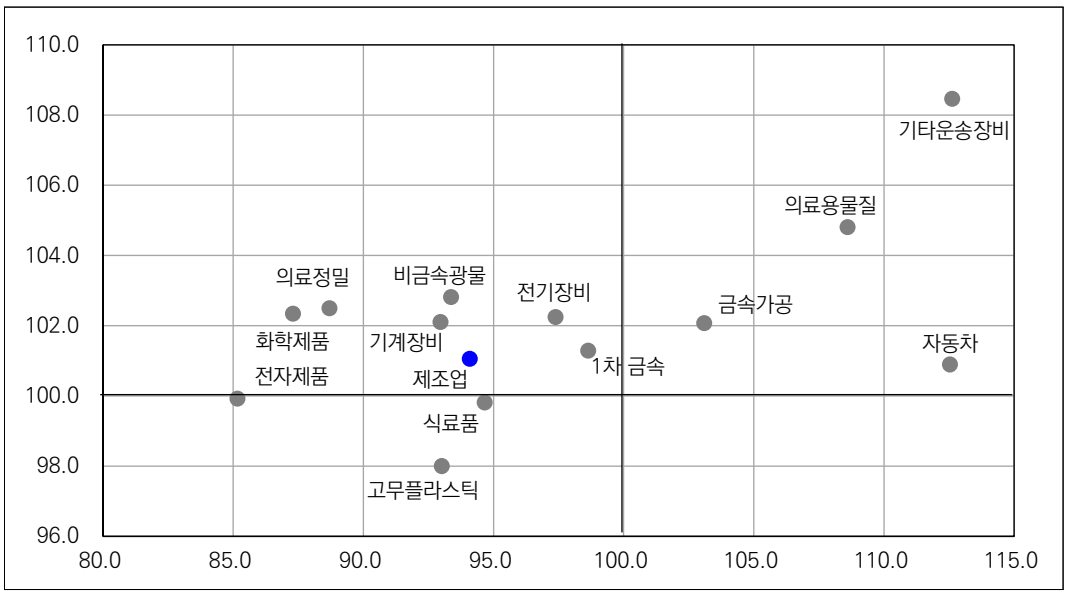
[그림 23] 2023년 1~3분기 품목별 수출 증가율(우)

(단위 : %,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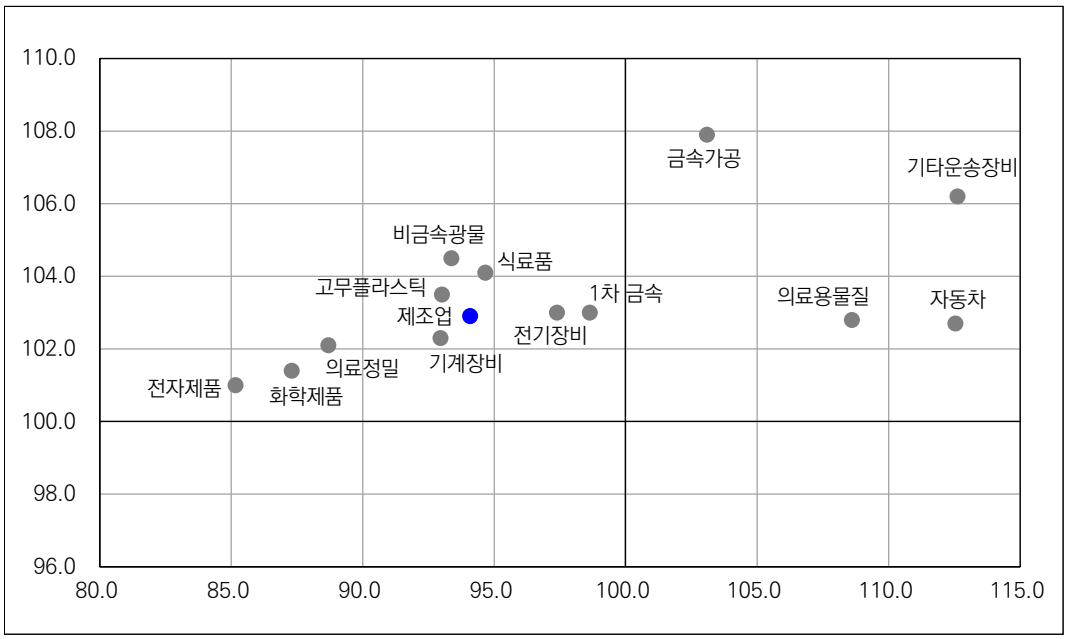
주 : 1) 총수출 및 품목별 수출은 월별 자료를 합산하여 분기자료로 변환한 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계산하였음.
2) ICT는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를 포함하고, 바이오헬스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출을 포함함.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보도자료.

[그림 24] 제조업 업종별 생산지수와 사업체 종사자수 전년동기대비 변동(2023년 1~10월)



주 : 1) 사업체 종사자수와 산업별 생산지수는 월 자료 평균값을 사용하고, 2022년 1~10월=100일 때 2023년 1~10월 수준을 산출함.
2) 가로축은 생산지수, 세로축은 사업체 종사자수.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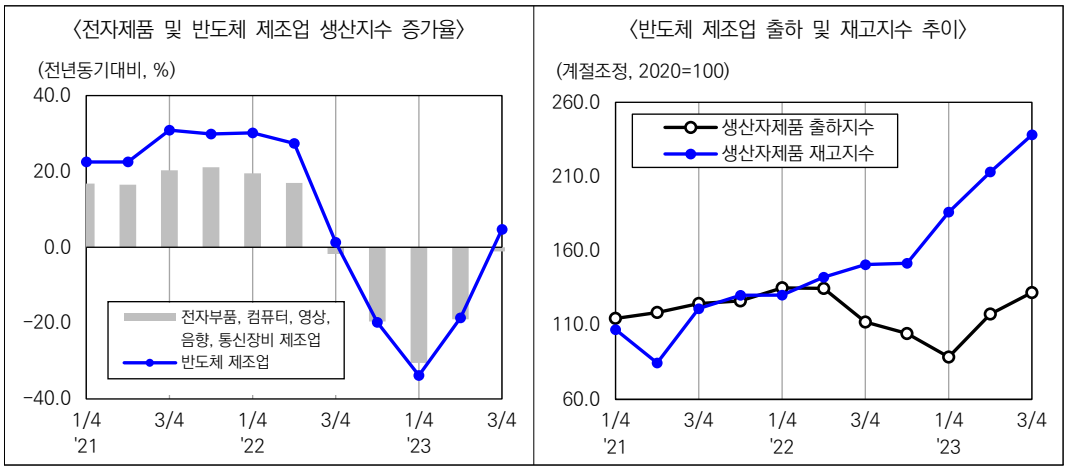
[그림 25] 제조업 업종별 생산지수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년동기대비 변동(2023년 1~10월)



주 : 1) 산업별 생산지수는 월 자료 평균값을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10월 수치를 합하여, 2022년 1~10월=100일 때 2023년 1~10월 수준을 산출함
2) 가로축은 생산지수, 세로축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E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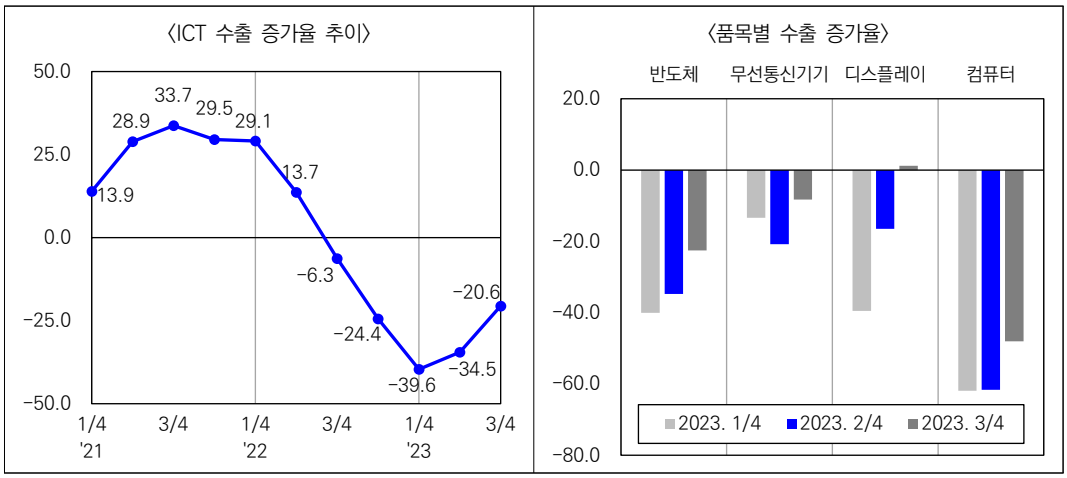
[그림 24]와 [그림 25]는 각각 제조업 업종별 생산지수와 사업체 종사자 수, 제조업 업종별 생산지수와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한 평면에 나타낸 것이다. 각 업종별로 2022년 1~10월을 100으로 두었을 때 해당 업종의 올해 생산지수 수준과 고용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 나타나듯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업황은 좋지 않았다. 제조업 세부 업종들 중 생산 감소 정도가 가장 컸다. 특히, 반도체 제조업의 업황이 부진했고, 수출도 연중 큰 폭 감소가 지속되었다. 업황과 수출이 악화되면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고용도 둔화되었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제조업 중에서도 고용비중이 높은 업종 중 하나다. 물론 경기 변동의 정도와 지속 기간에 따라 고용이 변동하는 민감도는 달라질 수 있다. 올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업황 부진은 상당히 심했지만, 그에 비해 고용 변동은 크지 않았다. 사업체 종사자와 피보험자 모두 증가세가 둔화되긴 하였으나 큰 폭의 고용 감소는 없었다. 사업체 종사자는 상반기까지 증가를 지속했고 하반기 들어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종사자 수 감소 규모는 크지 않다(7~10월 평균 7천 명 감소).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연중 한 자릿수 증가이긴 하나 매월 증가를 유지하였다.

[그림 26] 반도체 제조업 생산 증가율(좌), 반도체 제조업 출하 및 재고지수 추이(우)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그림 27] 정보통신산업(ICT) 수출 증가율 추이(좌), 품목별 수출증가율(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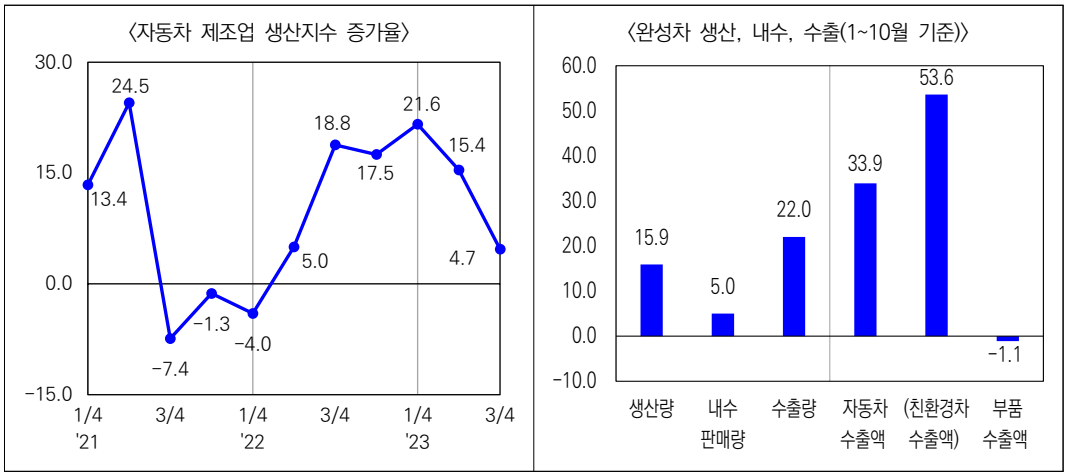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그림 24]와 [그림 25]를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과는 반대로 업황이 좋았던 자동차 제조업이 눈에 띈다. 자동차 제조업은 2023년 연중 경기 및 수출 관련 지표가 모두 양호했다. 상반기 중 생산 정상화 이후 대기 수요가 실현되고,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의 SUV, 친환경차 등 고부가가치 자동차의 수요 증가가 지속되면서 수출 호조세가 이어졌다. 업황 호조로 자동차 고용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자동차 제조업 사업체 종사자 수는 약 3여 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올해 초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매월 완만하게 증가폭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

였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상반기 약 9천 명 증가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하반기 들어 증가폭을 확대하며 매월 두 자릿수 증가를 지속하였다.

[그림 28] 자동차 제조업 생산 증가율(좌), 완성차 생산, 내수, 수출(우)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2023년 10월 자동차산업 동향(잠정)」.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과 자동차 제조업은 업황에 비해 고용 변동성이 적은 편이긴 하나 올해의 업황에 따라 고용 둔화와 고용 증가가 나타났던 업종이다. 한편, 의약품 제조업은 올해 추세적인 고용 증가세를 유지한 업종이다. 2023년 의약품 제조업 생산은 전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의약품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부문 수출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수출 호조가 2022년 상반기까지 지속되었던 탓에 2023년 중에는 감소가 지속되었다. 의약품 제조업 고용은 당해 업황의 영향도 받긴 하겠으나, 산업의 성장으로 추세적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의약품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높은 편은 아니나 고용 증가세는 비교적 빠르며, 이후로도 의약품 제조업 고용의 추세적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계장비 제조업, 금속가공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등은 고용 상황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24]와 [그림 25]를 보면, 기계장비 제조업은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사업체 종사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금속가공 제조업은 생산이 증가하고 고용도 증가했는데 특히 피보험자가 대폭 증가했다.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과 식료품 제조업은 사업체 종사자는 감소하였으나 피보험자는 크게 증가했고,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사업체 종사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증가했다. 각 업종별 생산과 고용 또는 자료 간 고용 방향이나 변동 정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이는 기본적으로 내재된 통계자료 간 특성 차이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외국인 고용의 영향도 적지 않다.

사업체노동력조사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 없이 해당 사업체의 종사자 수를 조사하기 때문에 업종별 고용 증감에는 내국인 종사자 고용 변동으로 인한 부분과 외국인 종사자의 고용 변동으로 인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 이는 외국인 종사자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현원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로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가 있다.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제조업종은 금속가공, 기계장비, 식료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등이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금속가공 제조업에 약 17.2%, 고무플라스틱 14.9%, 기계장비 11.7%, 식료품 제조업에 8% 정도 분포되어 있다. 또한 올해는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에서도 외국인 종사자 수가 큰 폭 증가했다. 이들 업종은 고용 증감에서 외국인 고용 증감으로 인한 부분이 크게 나타난다. 전체 종사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내국인은 감소한 경우도 있고, 전체 종사자 증가에서 내국인 증가분과 외국인 증가분이 비슷한 업종도 있다. 피보험자 자료는 외국인력 확대로 인한 신규채용 증가뿐만 아니라 그동안 미가입되었던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된 영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서의 고용 변동폭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 종사자 비중이 큰 업종들은 고용 증감에서 외국인 고용 변동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자료 간 고용 변동폭 차이도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 상황 파악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표 10〉 제조업 업종별 내국인 및 외국인 고용 증감

(단위 : 명, 전년동월대비)

	식료품	고무플라스틱	금속가공	기계장비	기타운송장비
종사자 증감	-1,952	-6,553	7,059	10,103	9,282
내국인 증가분	-5,241	-9,555	-540	4,936	4,993
외국인 증가분	3,288	3,002	7,599	5,167	4,289

주 : 1)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는 반기 자료로, 상반기 자료의 경우 4월 기준 해당 사업체의 현원을 의미.
2) 현재 이용 가능한 가장 최신의 자료가 2023년 상반기 자료이므로 4월 기준 수치를 제시하였음.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2023년 제조업 고용은 둔화세가 나타났으나 전년 기저와 제조업 경기 상황을 감안하면 고용 둔화 정도는 완만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서 업황 부진이 심화되었지만 업종 특성상 고용 변동은 적게 나타나 큰 폭의 고용 감소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 제조업 경기 부진에도 자동차는 업황 호조가 이어져 고용도 증가했던 것, 그리고 의약품 제조업에서 추세적인 고용 증가가 이어진 것이 제조업 고용 감소를 일부 완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부진이 완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것이 제조업 고용 증가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내년에도 올해의 완만한 부진 흐름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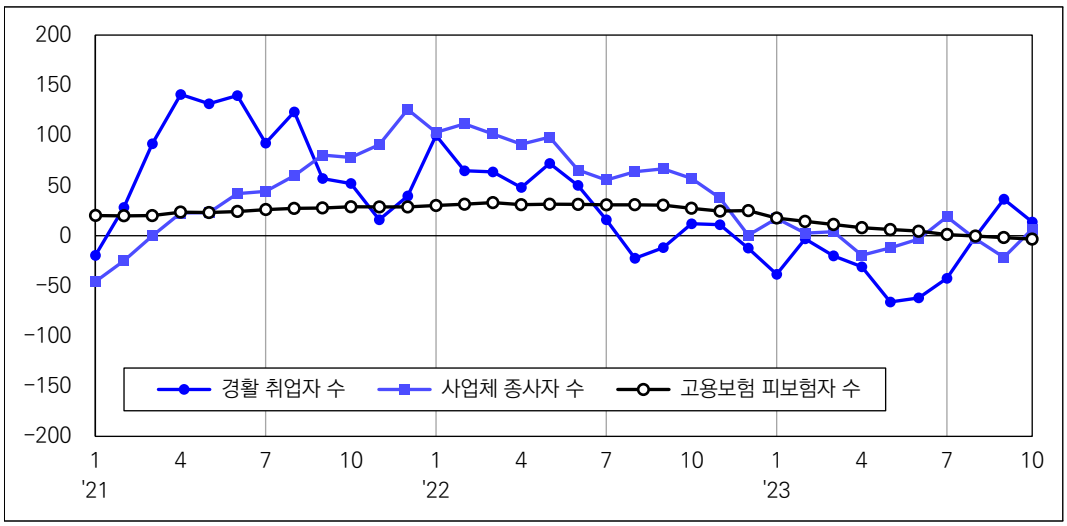
5. 양호했던 건설 경기 지표, 부진했던 건설업 고용

2023년 건설업 고용은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경활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1~10월 평균 2만 1천 명 감소하였다. 2021년과 2022년 같은 기간에 건설업 취업자가 각각 8만 4천 명, 3만 9천 명 증가한 것을 생각하면 올해 건설업 고용상황은 지난 2년간의 흐름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다른 고용 지표들에서도 2023년 건설업 고용 부진이 나타난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지난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2021년 1~10월 2만 8천 명 증가, 2022년 1~10월 평균 8만 1천 명 증가)되었지만 올해는 감소로 전환되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몇 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올해 1월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여 9~10월 중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다.

올해의 부진했던 건설업 고용 상황은 건설 경기 관련 지표가 연중 호조세를 유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일반적으로 건설 경기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건설기성과 건설투자를 들 수 있다. 건설기성은 건설업체들이 실제 공사를 시행한 결과로 수취하게 되는 공사비이며, 건설투자는 건설업체가 생산해 낸 건설 산출물의 부가가치와 투입되는 중간재를 포함한다. 건설기성과 건설투자는 건설경기 동행지표로 일정기간 동안의 건설 활동 전반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0]에 나타나듯 건설기성과 건설투자는 올해 연중 좋은 흐름을 유지하였다. 건설기성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올해까지 이어졌으며, 건설투자도 그동안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올해는 매 분기 증가를 기록하였다.

[그림 29] 건설업 고용지표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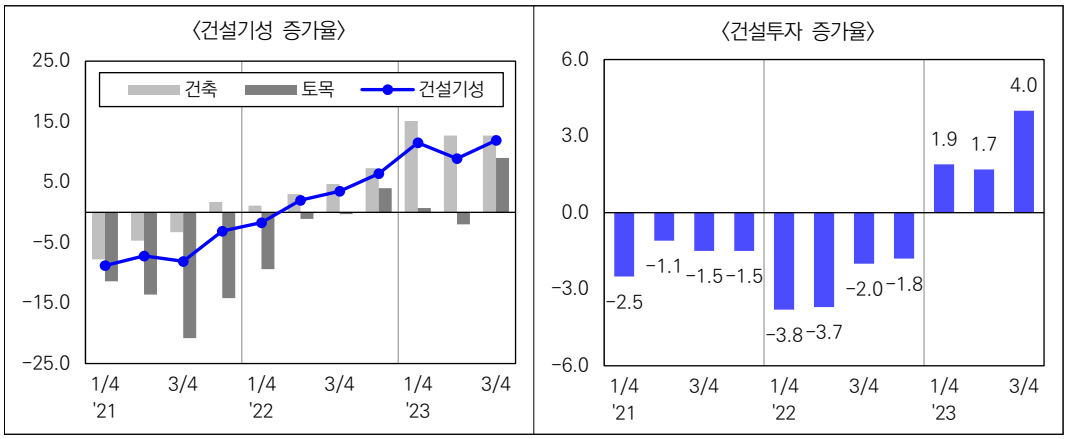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통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EIS.

올해 건설업 고용 부진은 신규로 채용되는 취업자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인 상용직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신규로 취업한 근로자가 매월 감소하였다. 근속기간이 2개월 이내인 근로자를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근로자로 가정하면, 신규 채용된 건설업 임시일용직은 2023년 1~10월 평균 약 5만 8천 명 감소했다.

[그림 30] 건설기성과 건설투자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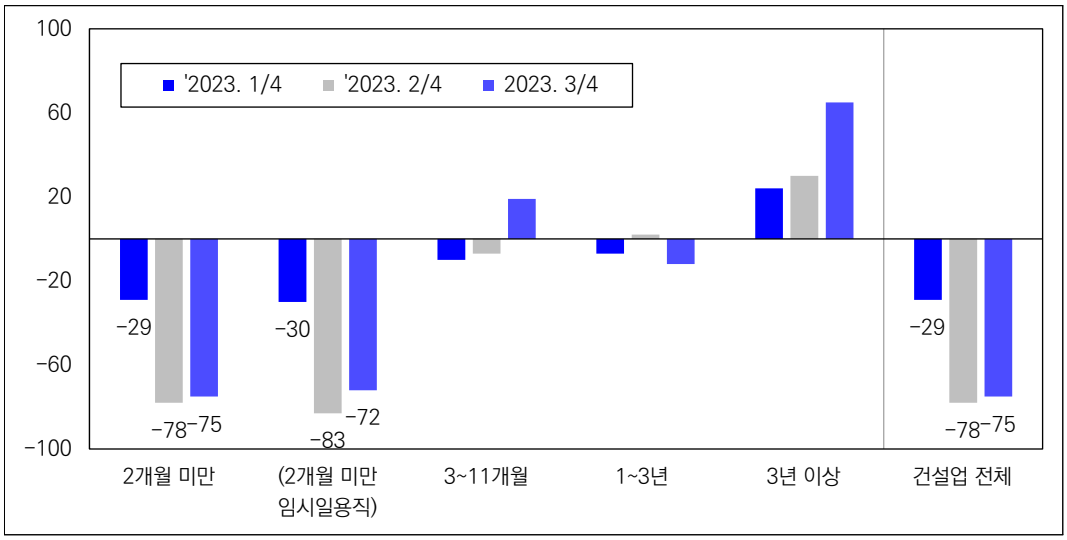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주 : 건설투자는 실질 GDP(원계열) 금액 기준, 건설기성은 불변가격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그림 31] 근속기간별 건설업 취업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6. 대면 서비스업의 회복세 지속

2023년 1~10월 평균 서비스업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42만 명 증가하였다. 2022년 서비스업 취업자는 60만 명 이상 취업자가 증가하여 코로나19 이후의 고용 회복 흐름이 2023년 이후에는 둔화될 것으로 보았으나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 취업자가 1~10월 평균 30만 명 가까이 증가하면서 전년도 증가폭(35.7만 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 전년도에는 여성 서비스업 취업자 대부분이 교육, 사회복지, 보건 등 사회서비스업 분야에서 늘어났다면, 2023년에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대면서비스에서의 고용도 함께 늘어나는 등 다양한 업종에서 여성 취업자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먼저 장기간 고용 감소가 이어지고 있던 도소매업은 2023년 10월 들어 취업자 증가(전년동월대비 +1.1만 명)로 전환하는 등 2023년 하반기 이후 고용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직

〈표 11〉 연령별 · 지위별 · 직종별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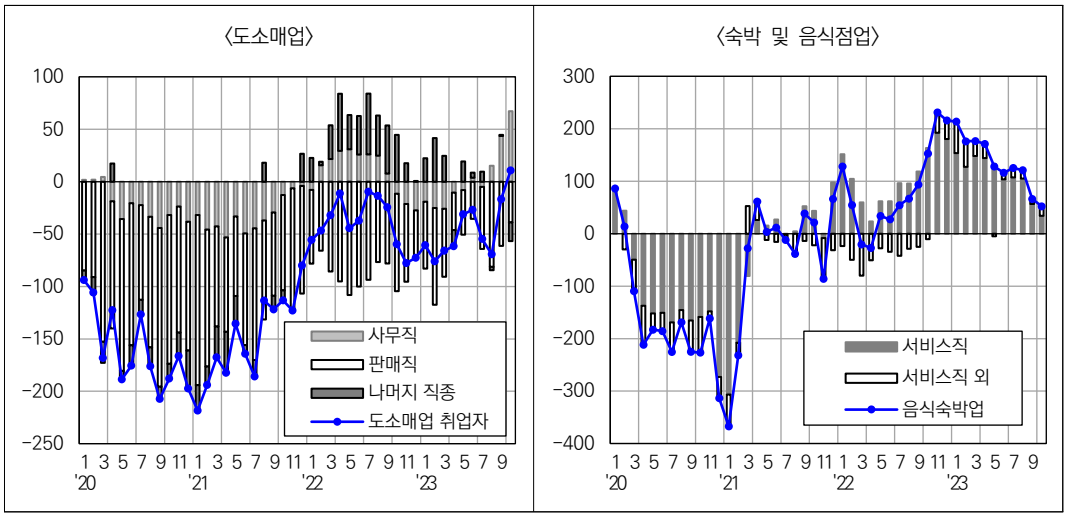
			도소매업 (G)	운수창고업 (H)	숙박음식업 (I)	비대면서비스 (J-N)	사회서비스 (O,P,Q)	서비스업 전체 (G~U)
전체		2020년 1~10월	-155	56	-144	-29	77	-189
		2021년 1~10월	-160	97	-54	172	272	221
		2022년 1~10월	-34	86	57	193	322	612
		2023년 1~10월	-45	-19	135	126	180	423
성별	여성	2022년 1~10월	6	6	38	103	238	357
		2023년 1~10월	33	-18	57	42	144	297
종사자위	상용직	2022년 1~10월	71	32	35	174	283	620
		2023년 1~10월	40	1	77	80	224	468
	임시일용	2022년 1~10월	-41	-2	22	-8	21	-17
		2023년 1~10월	-39	-22	46	13	-40	-36
	자영업	2022년 1~10월	-63	56	0	28	17	9
		2023년 1~10월	-46	2	12	32	-4	-8
직종	관리전문사무	2022년 1~10월	29	12	-3	136	181	353
		2023년 1~10월	14	4	8	125	124	307
	판매직서비스	2022년 1~10월	-87	-1	78	11	87	73
		2023년 1~10월	-57	-5	103	26	57	174
	기능장치	2022년 1~10월	24	75	-18	47	54	188
		2023년 1~10월	-2	-18	23	-42	-2	-7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판매직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으며, 경영 및 회계를 담당하는 사무직에서 하반기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도소매업에서 여성 취업자가 늘어난 것도 사무직에서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도소매업 고용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세 이상 중고령층 취업자가 증가하고(50대 +3.0만 명, 60대 +3.6만 명), 20대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2020년 1~10월 기준 50.9만 명, 2021년 50만 명, 2022년 50.6만 명으로 50만 명 이상이었으나 2023년 42.2만 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32] 직종별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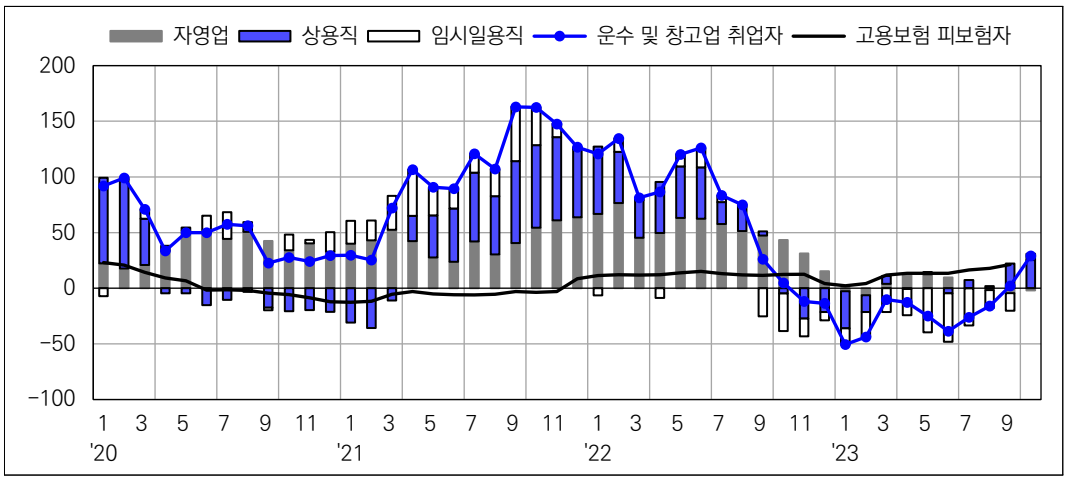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숙박음식점업은 2023년 1~10월 평균 13.5만 명 증가하면서 높은 증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 2020년 1~10월 평균 14.4만 명 감소, 2021년 5.4만 명 감소, 2022년 5.7만 명 증가로, 지난 4년간 추이를 보면 2020~2021년의 취업자 감소가 2022~2023년의 취업자 증가로 상쇄되는 상황이다. 최근 2023년 8월 12.1만 명이 증가했던 숙박음식점업은 9월 6.6만 명, 10월 5.2만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크게 둔화하고 있다.

운수창고업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소비가 활발해짐에 따라 2022년까지 고용이 크게 증가했던 업종으로, 비대면소비에서 대면소비로 전환되면서 2022년 11월부터 취업자가 감소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2023년 8월까지 월 평균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약 2.5만 명 감소하였다. 운수창고업 상용직 취업자는 2022년 하반기부터 둔화되기 시작하여 2023년 상반기에는 감소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용직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는 모습이다.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은 전년동월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

[그림 33] 운수창고업 취업자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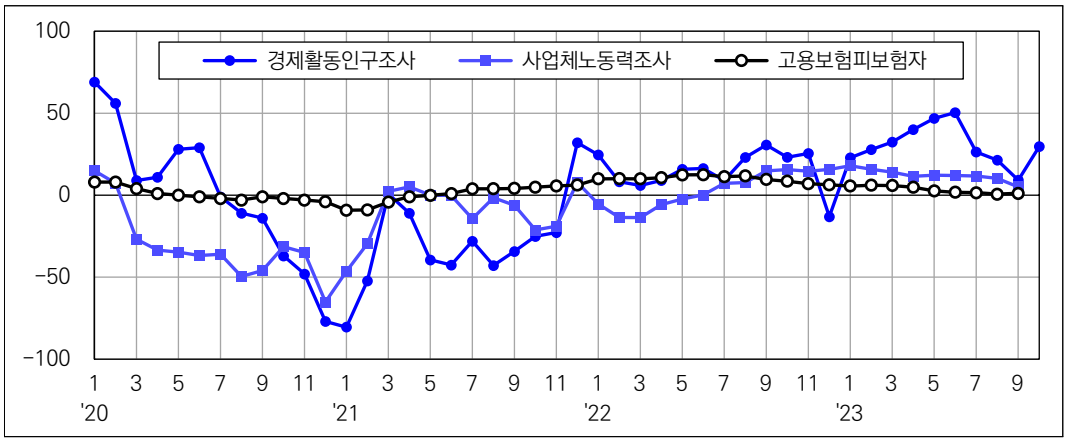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이하 예술여가업)은 2023년 상반기 3.7만 명의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고용이 크게 증가했던 업종이다. 하반기 들어서는 증가폭이 둔화되어 7~10월은 약 2만 명 수준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계절조정 기준 2023년 6월 53.5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고점이었던 2019년 12월 수준(53.3만 명)을 상회했는데, 2023년 10월 기준 51.5만 명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1만 명 내외의 증가폭을 보이던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점차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그림 34] 자료원천별 예술여가업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7. 비대면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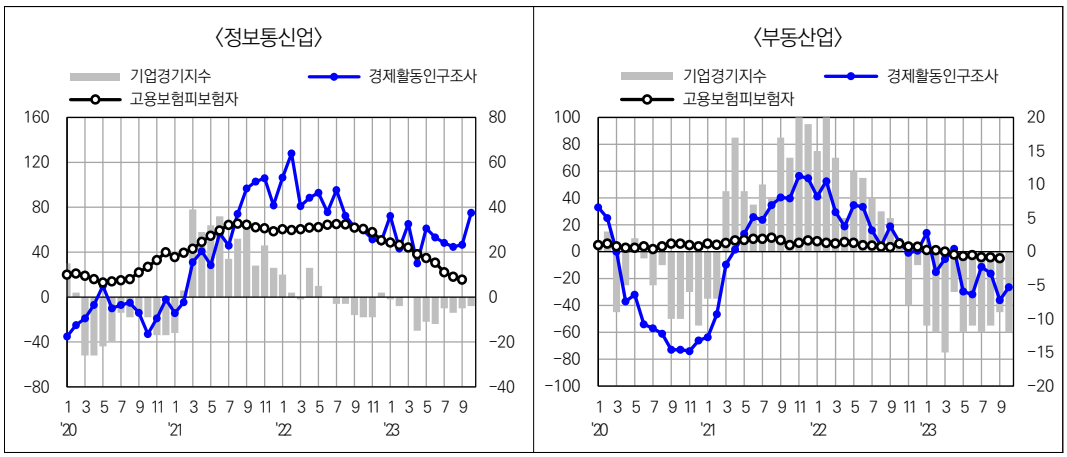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전문서비스, 비대면서비스 계열 취업자는 2023년 1~10월 평균 전년동기대비 12.6만 명 증가하여 2022년 증가폭인 19만 명보다는 다소 둔화되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전년과 비슷한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부동산업에서 1~10월 평균 1.6만 명 감소하면서 영향을 주었다. 부동산업은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고용이 크게 증가했으나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고용이 감소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부동산업 취업자 감소는 부동산 거래 및 계약에 따라 수입이 발생하는 중개보조원과 같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경기와 동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정보통신업은 2023년 1~10월 평균 5.4만 명의 취업자가 증가하였다.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전년동월대비 8만 명이 넘는 취업자가 증가하고 고용보험가입자도 5만 명이 넘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2022년 하반기에 이어 2023년은 다소 증가폭이 둔화된 모습이다. 1년 전에는 직종별로 전문직 취업자와 사무직 취업자가 함께 늘어나는 모습이었다면, 최근의 둔화에서는 사무직 고용이 둔화하고 전문직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보험업은 1~10월 평균 전년동기대비 취업자가 0.9만 명 증가하였다. 2022년은 약 2.7만 명 감소한 이후 취업자가 증가로 전환되었다. 금융보험업은 2020년, 2022년은 취업자가 감소하고 2021년, 2023년은 증가하면서 1년마다 취업자 증감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판매직에서 주로 증가하여 보험 및 연금 가입을 목적으로 하는 판매서비스 관련 직종을 중심으

[그림 35] 자료원천별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취업자, 기업경기지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로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2021년부터 꾸준히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업종으로 2023년 1~10월 전년동기대비 취업자가 7만 명 증가하여 2022년 동 기간 증가폭(7.4만 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고용이 늘어났다.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하 사업서비스업) 취업자는 1~10월 평균 전년동기대비 0.8만 명 증가하여 2022년 증가폭 3.5만 명에 비해 둔화되었다.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5만 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를 보이던 사업서비스업은 2022년 하반기부터 1년 동안 취업자가 소폭 감소하였고, 이후 2023년 5월(+1.0만 명)부터 취업자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현재(2023년 10월)는 3.8만 명 증가하였다. 사업서비스업은 중고령층 이상 연령대의 고용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으로, 50세 이상 연령대에서 매년 4만 명 이상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 취업자가 여성보다 증가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기존 취업자 증가가 이어져오던 2020~2022년에는 상용직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현재는 임시일용직, 자영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2022년은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중심으로 증가했다면, 2023년은 화이트칼라 직종이나 서비스직, 농림어업 숙련직에서 증가하고 있다.

〈표 12〉 각 부문별 사업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19년 1~10월	2020년 1~10월	2021년 1~10월	2022년 1~10월	2023년 1~10월
사업서비스업		-9	31	50	35	8
연령대	15~49세	0	23	10	-21	-32
	50세 이상	-8	8	40	56	41
성별	남성	-12	18	32	22	17
	여성	3	14	19	13	-9
종사상 지위	상용직	4	68	41	11	-5
	임시직, 일용직	-10	-35	5	12	7
	자영업자	-3	-1	4	12	6
직종별	관리,전문,사무	24	17	8	6	4
	나머지	-16	9	6	0	22
	단순노무 종사자	-17	6	35	29	-18
근속 기간	1개월 미만	1	-1	-5	1	22
	1~11개월	-17	-14	17	12	-5
	1년 이상	11	48	35	1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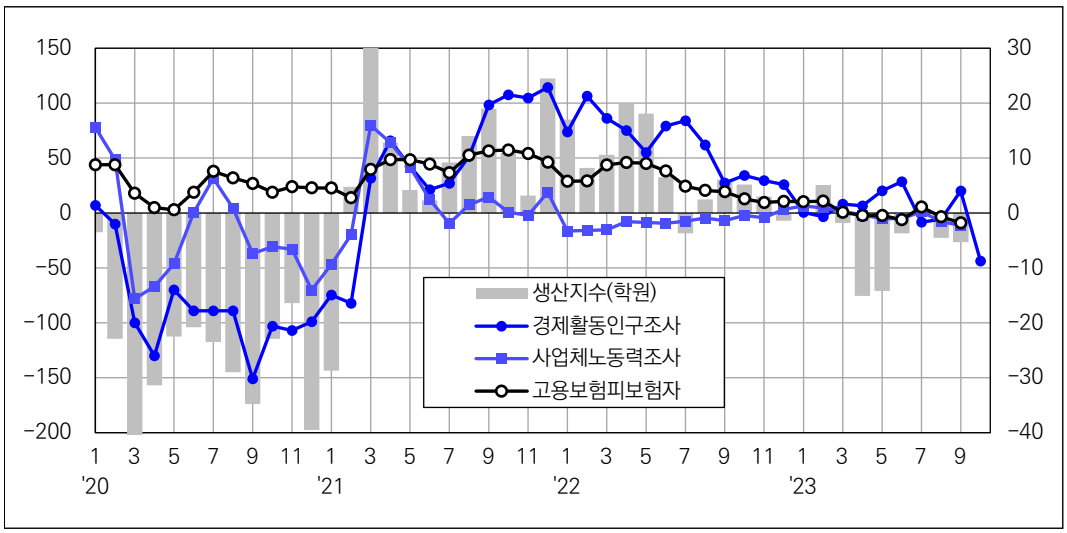
주 : 근속기간은 조사연월과 일자리를 시작한 연월을 차감한 값을 의미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8. 사회서비스업의 고용둔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이하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같은 사회서비스업은 대면/비대면 서비스업과 달리 2023년 고용이 둔화된 모습이다. 1~10월 평균 전년동기대비 18만 명 증가했으나 2021년 27만 명, 22년 32만 명 증가폭에 비해서는 크게 둔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중 취업자 증가폭 둔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 업종은 교육서비스업이다. 2023년 1~10월 평균 0.2만 명 증가하여 2022년 고용수준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2022년은 2021년 대비 6.8만 명 증가했으니 6.6만 명만큼 고용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월간 취업자 증감 폭의 변동이 심한 편에 속하지만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서비스업은 직종별로 임시직에서, 규모별로는 1~9인이 재직 중인 소규모 사업체에서 감소하고 있다. 고용보험피보험자 통계상으로도 2022년 월 평균 5만 명 늘어나던 것과 달리, 지금은 감소로 전환하여 소규모 교습학원에서의 고용이 감소 중인 것으로 보인다. 대신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만 명 내외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36] 자료원천별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생산지수(학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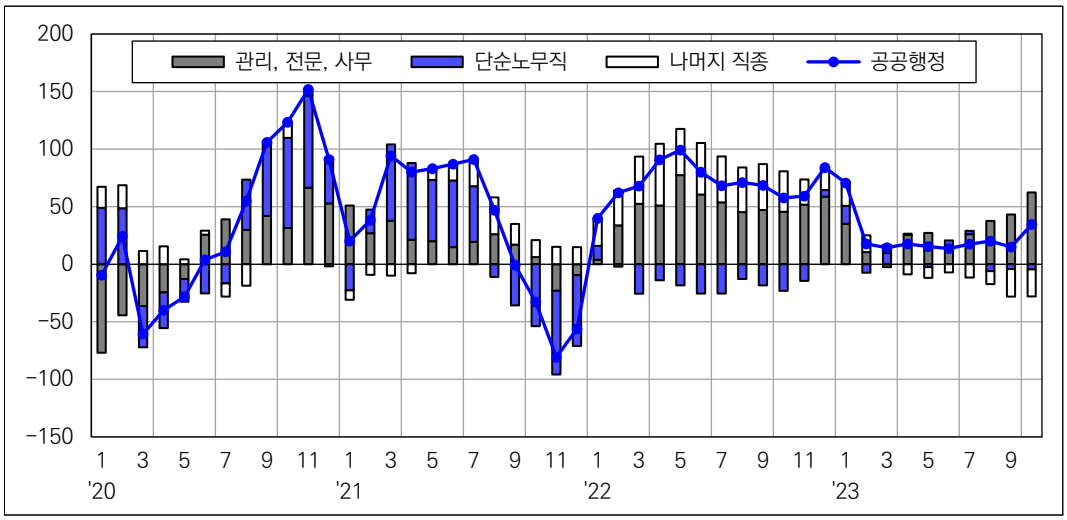
주 : 생산지수는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에서 교육서비스업 중분류 중 학원의 불변지수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의미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공공행정에 종사하는 취업자는 1~10월 평균 전년동기대비 2.4만 명 증가하여 기존의 증가폭의 절반 가까이 둔화되었다. 공공행정은 2020년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대한 기저영향으로 2021년 하반기 잠시 고용이 감소했던 기간을 제외하면

지난 과거 3년 동안 약 5만 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가 이어지고 있었다. 공공행정은 2020~21년 사이 단순노무직을 중심으로 증가가 이어지고 있었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단순노무직이 점차 감소하면서 현재는 공공행정 취업자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신에 관리직, 사무직 등 화이트칼라 계열 취업자가 2022년 취업자 증가폭의 대부분을 맡고 있으며, 2023년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림 37] 직종별 공공행정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마지막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023년 1~10월 평균 전년동기대비 15.4만 명 증가하면서 2022년(+18.3만 명)의 증가폭보다 다소 둔화되었다. 2022년에는 청년층이 5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취업자 증가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2023년에는 1.5만 명 감소하였고, 30~50대의 취업자 증가 비중이 증가하였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8.1만 명 증가하여 전년보다 고령층 취업자 증가폭보다 확대되었으나, 직종별로 단순노무직이 포함된 블루칼라 계열의 취업자 증가폭은 크게 둔화되었고 임시일용직은 1.5만 명 감소하였다. 반면, 화이트칼라, 서비스직 취업자가 늘어났고, 상용직이 늘어나면서 기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증가의 주요 부분을 차지했던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활동 일자리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행정업무 지원과 같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였다.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취업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1년이 넘어가는 취업자가 크게 증가한 것도 이러한 변화를 설명해 준다.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 8. 29.)에 따르면 2024년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규모와 참여 대상을 확대할 예정으로 보인다.

〈표 13〉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19년 1~10월	2020년 1~10월	2021년 1~10월	2022년 1~10월	2023년 1~10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160	141	192	183	154
연령 대별	15~29세	-1	-6	-21	57	-15
	30~59세	78	37	72	55	88
	60세 이상	83	110	141	70	81
성별	남성	15	25	29	33	25
	여성	146	116	164	150	129
지위별	상용직	140	65	78	147	171
	임시직+일용직	29	73	118	32	-15
	비임금근로자	-9	3	-4	4	-2
종사자 규모	1~99인	141	108	198	115	100
	100인 이상	20	33	-6	69	54
종사 직종	관리+전문+사무직	36	-14	34	103	91
	서비스직	76	83	47	38	55
	기능+장치+단순노무	47	68	113	42	9
근속 기간	1년 미만	99	80	104	111	-10
	1년 이상	70	58	93	68	16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Ⅲ. 2024년 고용 전망

본원 동향분석실은 2023년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2024년 노동시장을 전망하였다. 먼저 2023년 하반기 전망과 실적치를 살펴보면, 『노동리뷰』 2023년 8월호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은 취업자 수가 하반기에 전년동기대비 253천 명 증가해서 연간 312천 명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7~10월까지의 전년대비 취업자 수 실적치는 약 282천 명 증가한 것으로 관측되며, 1~10월까지 보았을 때 전년대비 약 336천 명 증가하였다. 즉, 11월과 12월 고용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노동시장 취업자 수는 전망보다 약 20천~30천 명 정도 더 많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2024년 노동시장을 다음과 같이 바라보았다. 첫째, 2023년 10월까지의 노동시장을 살펴본 결과, 전망보다 강건했던 노동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가능성을 고

〈표 14〉 2023년 하반기 실적과 전망

(단위 : 천 명)

	2023년 하반기 (실적치 7~10월)	2023년 연간 (실적치 1~10월)
실적치	282	336
8월 KLI 전망	253	31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려하게 되었다. 2022년 연말부터, 작년의 높은 취업자 수 증가(연간 816천 명 증가)로 인한 기저효과, 그리고 약 100천~150천 명 정도의 15세 이상 인구증가를 근거로 고용이 조정되는 시기가 있을 것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올해 1~3분기, 그리고 10월까지의 강건한 노동시장 상황에 기반하여 고용이 조정되는 정도가 기존에 논의되었던 것보다 더 천천히 진행될 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전보다 높게 고려하게 되었다. 하지만 점진적이고 제한적일 수 있지만 기술한 기저효과와 인구효과를 고려하면 고용상황이 지금보다 유의하게 더 좋아지는 것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둘째, 2023년에 고용이 강건했던 여성과 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 추세가 2024년에 급격하게 안 좋아질 경우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하였다. 특히 30대 여성의 경우, 경기적 영향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김지연(2023)에서 보인 바와 같이 고용 증가와 함께 유(有)자녀 여성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관측되고 있기 때문에 가족형성과 관련된 구조적 요인이 큰 것으로 보았다. 고령층 고용 또한 고령층 고용현황과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 시 마찬가지로 구조적 요인이 유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올해 20대와 30~40대 남성 고용은 어려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들은 경기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다고 보았다.

셋째, 전망되고 있는 내년 경기회복은 고용에 정(+)의 효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규모가 제한적이고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과 KDI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4년 경제성장률이 상반기에 2.2~2.3%, 하반기에 2.0%로서 연간 2.1~2.2% 성장이 예상된다. 이는 올해에 비해 경기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1] 두 기관 모두 부문별로는 경기회복이 수출 부문에서의 회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민간소비는 2023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최근 전반적으로는 경기와 고용 간 관계가 예전보다 약해졌기 때문에 어떤 부문에서 경기회복이 이루어질 것인지가 고용전망에 더 중요할 수 있다. 『노동리뷰』 8월호에서 상반기에 경제성장률이 0.9%로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취업자 수 증가가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부문별 경기와 고용 간 관계를 논의하였다. 올해 상반기에는 제조업과 수출 부문 경기가 좋지

1) 2023년 경제성장률 : 1분기 0.9%, 2분기 0.9% 그리고 3분기 1.4%. 2024년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이 상반기 2.2%, 하반기 2.0%로 연간 2.1% 성장을, KDI가 상반기 2.3% 하반기 2.0%로 연간 2.2% 성장을 발표하였다.

않았고, 민간소비와 서비스업 부문이 상대적으로 좋았다. 지표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제조업과 수출은 경기와 고용 간의 관계가 약하고 경기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반면, 민간소비와 서비스업은 경기와 고용 간 관계가 더 긴밀하고 서로 동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이 상반기에 0.9%의 높지 않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300천 명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를 보였던 요인 중 하나일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내년 경기회복으로 인한 고용 증가 역시 규모가 제한적이고 시차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경기회복 과정에서 고용에 미치는 정(+)의 효과는 20대 청년과 30~40대 남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

〈표 15〉는 한국노동연구원이 하반기 노동시장 전망 이후 개선한 전망모형 결과와 위 관점을 종합하여 발표하는 전망치이다.

〈표 15〉 2024년 연간 고용 전망

(단위 : 천 명, %)

	2023			2024p		
	상반기	하반기p	연간p	상반기	하반기	연간
취업자	28,230	28,605	28,417	28,480	28,868	28,674
(증가율)	1.3	1.0	1.2	0.9	0.9	0.9
(증감수)	372	284	328	**250**	**263**	**257**
실업률	3.0	2.4	2.7	2.9	2.4	2.7
고용률	62.2	62.9	62.6	62.6	63.3	62.9

주 : p는 전망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15〉에서 볼 수 있듯이, 2024년 취업자 수는 상반기에 2023년 상반기에 비해 250천 명 증가한 총 28,480천 명, 하반기에 263천 명 증가한 28,868천 명으로 연간 257천 명 증가한 28,674천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실업률은 상반기에 2.9%, 하반기에 2.4%로 연간 2.7%, 고용률은 상반기에 62.6%, 하반기에 63.3%로 연간 62.9%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예기치 못한 전쟁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예상보다 노동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노동시장 침체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내년에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올해 고용상황이 어려웠던 20대와 30~40대 남성 등의 고용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 고용률

2) 기술한 부문별 경기와 고용 간 관계는 시기에 따라 관계가 변할 수 있고 다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며, 본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 · 검증을 하고 있다.

및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추세를 유지하면서 원하는 경제주체가 출산 등의 가족형성을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상황이 전망과 같이 완만하고 점진적인 추세를 가질 수 있을 때 장기적인 노동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마련에 무게중심을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LI

[참고문헌]

KDI 경제전망 연구진(2023), 『KDI 경제전망, 2023 하반기』, 한국개발연구원.

김지연(2023),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KDI 경제전망, 2023 하반기』,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2023), 「2023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전망」, 『노동리뷰』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부표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 천 명, %, %p, 전년동기대비, 전년대비)

		연도		1~10월			분기		
		2021	2022	2021	2022	2023	2023 1분기	2023 2분기	2023 3분기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45,080	45,260	45,018	45,226	45,368	45,317	45,358	45,378
	(증감)	(295)	(180)	(296)	(209)	(141)	(139)	(147)	(136)
	취업자	27,273	28,089	26,918	27,858	28,230	28,216	27,767	28,693
	(증감)	(369)	(816)	(119)	(941)	(372)	(604)	(397)	(346)
	(남성 증감)	(166)	(381)	(57)	(457)	(28)	(224)	(51)	(4)
	(여성 증감)	(202)	(436)	(62)	(483)	(344)	(381)	(346)	(342)
	고용률	60.5	62.1	59.8	61.6	62.2	62.3	61.2	63.2
	남성	70.0	71.5	69.4	71.2	71.1	71.5	70.3	71.9
	여성	51.2	52.9	50.5	52.3	53.7	53.3	52.4	54.9
	실업자	1,037	833	1,254	935	859	741	918	800
	실업률	3.7	2.9	4.5	3.2	3.0	2.6	3.2	2.7
	남성	3.6	2.7	4.3	3.0	2.9	2.4	3.0	2.7
	여성	3.8	3.1	4.7	3.5	3.1	2.7	3.5	2.7
	비경제활동인구	16,770	16,339	16,846	16,433	16,279	16,360	16,673	15,886
	(증감)	(-3)	(-432)	(117)	(-413)	(-154)	(-373)	(-178)	(-130)
15~64세	생산가능인구	36,498	36,233	36,548	36,308	36,033	36,130	36,071	35,994
	(증감)	(-141)	(-265)	(-138)	(-240)	(-275)	(-297)	(-277)	(-274)
	고용률	66.5	68.5	65.8	68.1	68.9	68.8	68.2	69.6
	남성	75.2	76.9	74.6	76.6	76.6	76.9	76.0	77.2
	여성	57.7	60.0	56.8	59.4	61.0	60.5	60.1	61.8
	취업자	24,280	24,824	24,058	24,739	24,820	24,858	24,583	25,057
	(증감)	(150)	(544)	(-103)	(681)	(81)	(317)	(87)	(7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